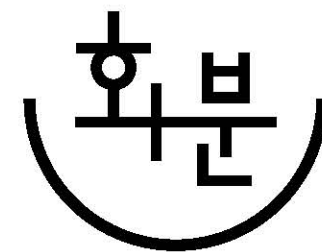


HCF MAGAZINE



2020 NOVEMBER & DECEMBER



TIME

한 해의 마지막은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상황과 한없이 붕 뜨는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곤 한다. 그러나 마지막을 잘 보내야 새해를 기분 좋게 마주할 수 있는 법. 어느 때보다 변화가 많았던 시간을 돌아보며 나쁜 기억은 묻어놓고, 좋은 기억만 갖고 가도록 하자. 올해도 수고한 당신에게 《화분》의 이야기를 통해 응원을 남긴다.



04 PIECE

화성의 한 조각
제부도 아트파크



10 INTERVIEW

화성시 M.I.H 프로젝트 예술단
안무감독 김기수, 합창단원 윤영민,
관현악단원 오성광

16 COLUMN

위축된 공연계를 위한 현장 실험
랜선 공연이 아닌 길 위의 공연으로

20 TALK

생활문화로 더하는 빛나는 일상
컬처플레이트 대표 오가음

24 LIVE

꽃이라는 환한 이름으로
해바라기 작가 유상선



30 WALK

언덕에서
작가 김현진과의 산책

34 FEATURE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연말 문화 데이트

38 TICKET

두드림으로 그린 소리
최소리의 소리를 분다 展

42 SKETCH

화성을 그리는 방법
마음껏 즐기는 콘서트

44 CHECK

시간에 보태는 정성
고즈넉한 비밀 코스



50 HELLO

화성시문화재단 사람들
맑고 깨끗하고, 자신 있게

54 LIST

타임머신이 간절한 사람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58 PEOPLE

화성인의 시간

62 CULTURE & ISSUE

화성시문화재단
11·12월 문화소식

68 LETTER

화성시문화재단이
전하는 이야기

70 PLACE

배포치

72 REVIEW

편집 후기



J°AP

6 CONTAINER PARK°

제부도 아트파크
J°AP ART PARK

J°AP
제부도 아트파크

Write it on your heart that every day is
the best day in the year.

매일매일, 오늘이 일 년 중 최고의 날이라고 가슴 속에 새겨라.

- Ralph Waldo Emerson

제부도 아트파크
A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190-2

에디터 김혜은 사진 김철우



화성의 한 조각

하루에 두 번밖에 길이 열리지 않는 작고 조용한 섬, 제주도의 끝엔 제부도 아트파크가 있다. 낮 놓고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 공간부터 문화예술을 즐기는 전시 공간까지 한곳에서 만날 수 있다. 최근에는 '섬'이라는 지역성을 이용해 다양한 작업을 하는 작가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시로 풀어냈다. 메시지를 작품에 숨기고 관람자의 능동적인 행위를 끌어내는 손민아 작가의 <IMAGINE: Anamorphosis>, 진정한 휴식이 무엇인지 묻는 김자이 작가의 <휴식의 기술>, 제부도 주민들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생존의 기술>은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깊은 생각을 하게 한다.





THE 담다

INTERVIEW
화성시 M.I.H 프로젝트
예술단

COLUMN
랜선 공연이 아닌
길 위의 공연으로

TALK
컬처플레이트 대표
오가음

LIVE
해바라기 작가
유상선

화성시 M.I.H 프로젝트 예술단 안무감독 김기수, 합창단원 윤영민, 관현악단원 오성광

M.I.H(Made In Hwaseong)는 한 해 동안 움츠러들었던 화성의 예술인들을 응원하고자 만들어진 프로젝트 예술단이다. 화성시에서 관현악단, 합창단, 스트리트댄스 팀이라는 새로운 조합을 이루고, 공개 모집을 통해 곳곳에 흩어진 예술인들을 한데 모았다. 그들이 2020년을 '모든 게 생각처럼 되지 않는 해였다.'고 매듭 짓지 않도록, '그래도 다시 도전해볼 수 있는 해였다.'고 기억할 수 있도록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 만난 세 사람의 눈에는 절망과 희망이 교차했지만 마지막에는 분명 희망이 더 크게 반짝였다. 지금, 그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연은 어느 때보다 새롭고 간절하다.

글 이다은 사진 강현숙

“상황이 바뀌었으니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죠.
가재가 딱딱한 껍질에서 나와서 다시 더 큰 껍질을 만드는 것처럼요.”

반갑습니다. 세 분 모두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기수(이하 '김')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리트댄스 팀 안무감독 김기수입니다.

윤영민(이하 '윤') 저는 M.I.H 합창단 알토 파트의 윤영민입니다.
오성광(이하 '오') 저는 M.I.H 관현악단의 타악기 단원인 오성광이라고 합니다.

화성시 M.I.H 프로젝트 예술단은 관현악단 42명, 합창단 11명, 스트리트댄스 팀 11명, 행정 보조 6명까지 총 70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프로젝트 예술단이에요. 구체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예술인이 무대에 설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춤추고 노래할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 예술단이에요. 관현악, 합창, 스트리트댄스 세 분야로 이루어져 있죠. 약 4개월간 화성시와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무대를 마련해 주고 기본적으로 일정한 페이를 지급해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목표는 11월 28일로 예정된 공연이에요. 파티널 무대와 다 함께하는 무대로 한 시간짜리 공연을 기획 중이에요.

이번 예술단은 단원들이 공연 기획부터 방식, 대상 등을 선정하는데 많은 참여를 했다고 들었어요. 특히 어떤 점에 집중하고 있나요?

김 지금까지 스트리트댄스 분야가 예술단에 속한 적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최초인 만큼, 저희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 과정에서부터 탄탄하게 쌓아가려고 노력 중이에요. 레퍼토리 준비도 중요하지만, 공연 홍보도 중요해요. 평소처럼 작업하되 화성시 내에 좋은 그림이 될 만한 장소에 가서 준비된 안무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거죠.
윤 합창단 공연도 온라인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적은 인원이지만 최대의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오 저희도 지휘자님을 필두로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저는 댄스 팀과 소규모로 매칭해서 작업 중이고, 코레오그래퍼(무용의 안무가) 유소정님과 공연을 준비 중이에요. 제가 다루는 타악기

는 다른 클래식 악기에 비해 다양한 장르에 쉽게 어우러진다는 장점이 있어서 스트리트댄스 팀과 협업하면서도 합창 음악에 어울리는 비트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요. 윤영민 선생님과 상송 작업도 함께하게 됐고요.

상송이요?

윤 제가 상송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만약 제가 오페라를 하는데 스트리트댄스와 협업하라고 하면 망설였을텐데 상송이라는 분야는 좀 더 대중적이기 때문에 관심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뭘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새로운 걸 시도해 본다는 자체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전문가잖아요. 저도 클래식만 28년을 해왔고요. 한 분야의 전문가끼리 협업을 하는 거라서 각자의 매력이 합쳐지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기대해요.

김기수 감독님도 첼로 연주자분들과 공연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김 'G선상의 아리아'라는 곡으로 준비 중이에요. 스트리트댄스는 부드럽게 움직이거나 터프하게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부드러운 움직임에는 현악기가 아주 잘 어울려요. 들리는 음에 집중하면서 몸으로 아름다운 첼로 선율을 표현하려고 해요. 이전에도 현악기와 협업한 경험이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해 온 공연보다 반응이 더 좋더라고요. 조합이 새로우면서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협업도 예술단 내에서 충분히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사된 거죠. 다행히 예술단 운영 팀장님과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이 비슷해서 빨리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분 모두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인 편 같아요.

김 예전부터 새로운 시도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8분 동안 아예 노래를 틀지 않고, 공간의 진동과 들숨, 날숨 호흡을 통해서만 춤을 추는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음악 위에서 몸으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댄서인데...'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밀어붙인 공연인데 아직도 그 작품이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보통 스트리트댄스라고 하면



합창단원 윤영민

4분의 3박자 음악에 맞추려고 하는데 그걸 걷어내는 순간 더 재미 있어져요. 보는 관객도 작업하는 댄서들도 마찬가지로. M.I.H 자체가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라서 즐겁게 작업하고 있어요.

오 저도 새로운 작업을 좋아해요. 공연계의 진행 방식이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오케스트라에 객원 연주자로 나가 공연을 했을 때도 올해는 관객이 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바뀌어가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녹음하고 연주하고 촬영하고 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 공부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윤 저 역시 이미 상송을 통해서 클래식 음악의 틀을 깨트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도전에도 열려 있어요. 전혀 다른 분야와 어울리며 교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뜻깊은 인연이고, 앞으로 M.I.H를 통해서 또 새로운 변화를 찾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서로 다른 분야의 예술을 가까이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다면요?

오 가장 인상적인 건 댄스팀의 작업 속도예요. 에너지가 넘치고 추진력도 무척 강하더라고요. 클래식 분야에만 있다 보면 조금 수동적인 태도를 갖게 될 수 있거든요. 다른 장르의 예술에 비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데 약한 면도 있고요. 댄스팀 작업은 확실히 시각적인 자극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이를 느꼈던 것 같아요. 같이 연습하면서 좋은 쪽으로 자극받고 있어요.

김 아무래도 저희는 표현이 자유분방하고 솔직한 편이에요. 요즘에는 대학에 춤 관련 학과가 있고 석박사 과정까지 밟을 수 있지만, 최근에 생긴 개념이죠. 물론 기본을 다져야 하지만 춤이라는 건 즉흥적인 매력이 크거든요. 지금 공연하는 프로 댄서들도 취미로 시작해서 전문가가 된 분들이 많아요. 아마 그래서 능동적인 태도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의견 조율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오 현악기나 관악기는 스트리트댄스 팀과의 협업이 신선했 거고, 그만큼 만들어나가는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타악기를 다루고 있고 댄서들에게 익숙한 힙합 비트로 작업하다 보니 의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은 없어요. 댄스팀과 협업할 때는 전자 드럼 패드와 마칭 스테어라는 행진용 큰 북을 써요. 마칭 스테어는 큰 관악 밴드에서 쓰이는 악기지만 지금은 힙합 비트에도 많이 쓰여서 택했고, 스틱을 던지고 받고 돌리는 기술인 스틱 트라이 댄스와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어요.

M.I.H의 특징 중 하나가 20~30대 신진 예술가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또래들과 작업하면서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오 가장 좋은 점은 하나의 큰 관계망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M.I.H 단원 모두 화성시 안에 거주하고 있지만 지인과 동반 지원한 사람들 말고는 클래식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모르는 사이가 대부분이에요. 댄스팀과 합창단과 협업하는 것도 새로운 관계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안에서 여러 갈래로 가지가 나서 현악기 연주자 중에서는 벌써 새로 팀을 이룬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새로운 팀! 빠르네요. 김기수 감독님이 속한 '갬블러크루'가 최근까지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으로 활동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경험이 M.I.H 스트리트댄스 팀 안무감독을 맡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나요?

김 네. 2013년부터 3년간, 2017년부터 3년간 총 6년 동안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으로 활동했어요. 그 기간에는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춤만 추면 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 전에는 열악한 상황에서 공연을 해왔기 때문에 공연 기획부터 의상, 장소, 또 금전적인 면까지 신경 써야 했거든요. 저는 화성시 주민이기 때문에 혹시 화성에 그런 단체가 생긴다면 꼭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른 댄서들보다 뛰어나서 안무감독을 지원한 게 아니라, 먼저 한 경험을 공유하고 그걸 토대로 리드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화성시에 이런 우수한 예술인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싶었고요. 오로지 돈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은 드물 거라고 생각해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니 저희도 적극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해요.

M.I.H에서 여러 가지 온라인 콘텐츠를 준비한다고요. 직접 무대에서는 입장에서 온라인 공연과 오프라인 공연은 많은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떤가요?

김 얼마 전에 <화성예술제>에 참여했어요. 무관중 공연이었는데 저희가 습관처럼 관객 호응을 유도하고 있더라고요(웃음). 팀원들 모두 공연해온 세월이 있으니 자동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공연 중간 중간 '아, 관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멧쩍어지죠. 끝나고서 저희끼리 '웃프다'고 했어요. 관객이 없는 게 신선하지만 슬프기도 하다고 얘기하면서요.

윤 저는 관객과 아이 콘택트를 하거나 제가 취한 액션에 반응을 받을 때가 참 좋았는데, 관객 없이 노래하려니 허공에 외치는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게 많이 어색하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좋겠네요.

오 오케스트라 연주도 거의 비대면으로 영상을 촬영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마이크도 송출하고 좋은 스피커로 들어도 사람의 귀로 직접 듣는 것만큼은 못 따라가거든요. 오케스트라 공연을 느끼는 감각 중 청각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음향에 관한 부분이나 관객이 현장감을 느끼기 어렵다는 부분이 아쉬워요. 그래도 요즘 방구석 1열이라고 하잖아요. 현장에서는 멀리서 한 가지 구도로 공연을 관람할 수밖에 없지만 화면에서는 카메라 연출을 통해서 다양한 장면을 즐길 수 있어요. 공연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아쉬움을 채우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시네요.

김 생각해 보면 무관중 공연이 처음일 뿐이지 온라인 콘텐츠는 코로나19 이전에도 많이 만들어 왔어요. 카메라를 가상의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춤을 추고, 그 영상을 SNS로 송출하고, 보는 이들은 텍스트로 피드백을 주고요. 저희도 어느 순간 그걸 인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상황이 바뀌었으니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죠. 가재가 딱딱한 껍질에서 나와서 다시 더 큰 껍질을 만드는 것처럼요. 그동안 해오던 방식에 안주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았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스트레스 덕분에 생각지 못한 멋진 공연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저희가 이 상황을 직접 겪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의 해프닝이었다고 웃으며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재미 있는 걸 만들기 위해 틈 들이는 시기라고 여기고 싶어요.

무대에 서는 사람 못지않게 오프라인 공연을 그리워하는 관객도 많을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예술을 원하고 찾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 만약에 한 끼 먹기도 힘든 상황인데 표를 구해서 공연을 보러 올 수는 없겠죠. 예술이 무조건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겠지만 사람마다 자이가 있지 않을까요? 공연을 안 봐도 그만인 사람, 한 번씩은 보러 가고 싶어 하는 사람, 공연을 통해서 큰 위로와 감

동을 받는 사람. 언제 어디서든 예술을 찾는 분들이 있어서 수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김 원시시대의 어느 아프리카 부족들이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가 '당신 부족의 춤은 무엇입니까?'라는 걸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춤을 포함한 모든 예술은 현실 문제와는 별개인 것 같아요. 예술을 추구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필요하다 느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내면에 장착된 요소 같아요. 앞으로 과학기술이 더 발달할 거고 인간의 감정은 더 메마를 거예요. 예술가들은 공연을 통해 관중들의 정서적 목마름을 채워주고, 반대로 에너지를 받기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윤 공감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남은 건 예술밖에 없다고요. 기술력, 산업 모든 게 지금에서 더 나아가면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정도로 성장해버렸다고요. 사람들이 너무 빠르고 바쁜 사회에 지쳐서 예술을 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마음의 병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어릴 땐 피아노 학원에서 음악을 배우고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도 미술, 음악 등 예체능 과목을 배웠는데 요즘



관악단원 오성광



인물감독 김기수

은 무조건 국어, 영어, 수학 위주잖아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예술에 대한 부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만큼 한 사람의 인격 형성과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게 예술인 거죠.

공연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공연이 주 수입원인 예술인들의 상황도 많이 힘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영민님을 통해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운 맞아요.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는 조금만 지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지내왔는데 공연이 매번 취소되다 보니 절망감이 들어요. 수입이 90퍼센트 이상 줄었고요. 점점 우울해지면서 희망도 없어졌어요. 공연이 잡히질 않으니 연습도 못 하고 허송세월했죠.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서 고민이 깊었겠어요.

운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어요. 몇 안 되는 연주들이 취소가 되었으니 상황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요. 안 그래도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데(웃음).... 가끔 예술을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이 좋아서 선택한 일이잖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참 속상해요. 예술계도 빈익빈 부익부 구조가 심해서 대부분의 예술인은 코로나19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예술과 현실이 항상 부딪히니까 이 일을 그만둬야 하는지 고민도 자주 해요.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을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터무니 없을 때는 자괴감도 들죠. 그런 점에서 M.I.H는 예술인들에게 희망

을 주는 오아시스 같은 프로젝트예요. 정부 자원의 지원 제도들이 있지만 사실 피부에 잘 와닿지 않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다 작성해 제출한다 해도 심사에서 떨어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M.I.H에서는 예술 활동 지원과 더불어 금전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돼요.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도움받고 도움을 주며 버텨온 것 같아요. 2020년이 저물어가는 이때,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어떤가요?

김 많은 부분이 정지되면서 강제적으로 생각할 시간이 늘었어요. 압축된 스프링 같은 상태로 지내왔죠. 코로나19는 언젠가 종식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이 상황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완벽하게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의 조심성을 유지하겠죠. 올해는 ‘앞으로 더 재미있게 예술을 하려면?’이라는 질문으로 변화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해였어요.

운 이렇게 길게 갈 줄 알았으면 좀더 릴렉스할 걸 그랬나 싶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한 가지 얻은 건 ‘아, 공연을 못 하니 내가 불행하구나. 이거 없으면 죽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물론 마스크를 쓴 상태지만 여러 멤버들과 하모니를 이루는 시간이 기적 같고 귀해요. 이전에는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고 의무적으로 했던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나를 개발하고 더 좋은 예술로 승화해야겠다고 생각하는 한 해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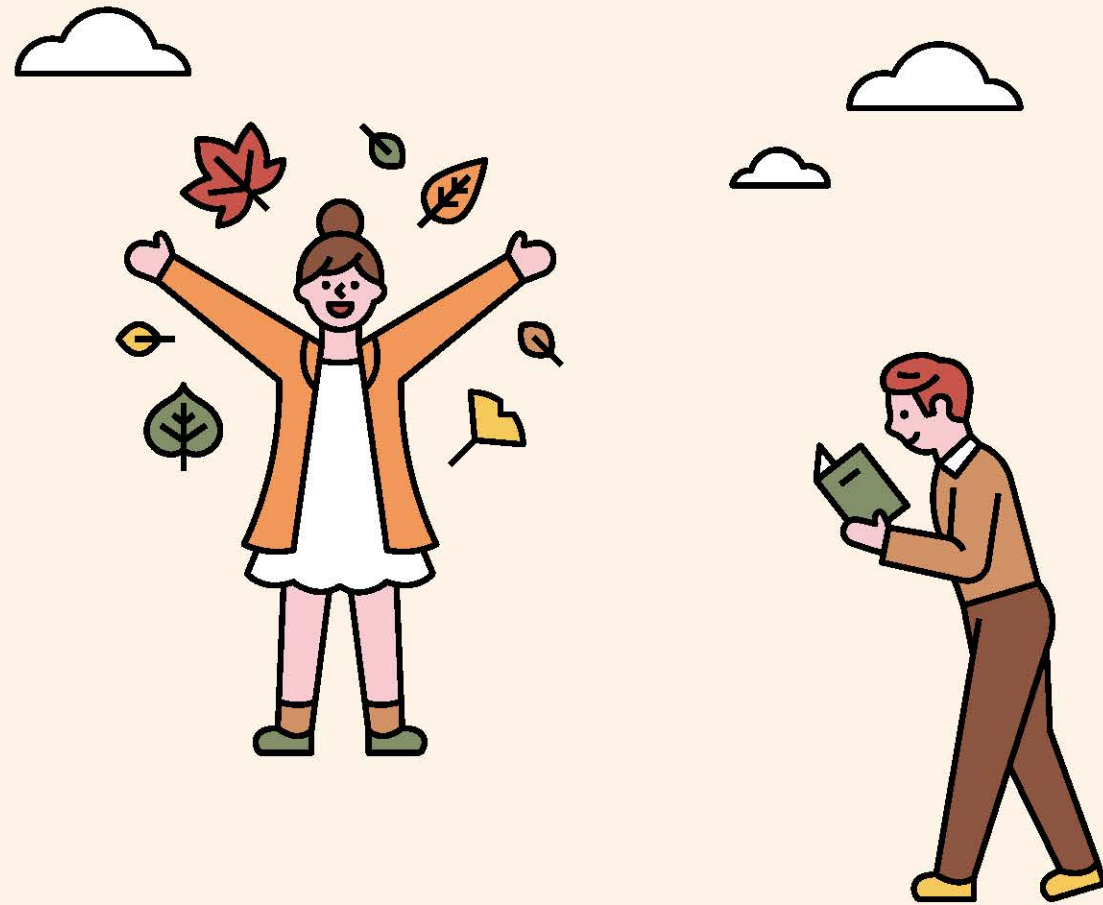
오 코로나19 때문에 몇 달 동안은 기존 수입이 제로였어요. 공연에 설 수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최악의 해라고 생각하면서 버텨왔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방법을 찾았어요. 어렵지만 원래 하던 것과 다르게, 항상 해오던 것들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정리가 돼요. 계속 밟아오던 길로만 갔다면 변화를 모르는 재미없는 클래식쟁이가 되었을지 모르죠.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도전한 해였다고 생각해요. 지나고 돌아보면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위축된 공연계를 위한 현장 실험 랜선 공연이 아닌 길 위의 공연으로

코로나19로 오프라인 공연이 불가능해지면서 다양한 장르의 '랜선 공연'이 등장했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인 공연 중계 방식이었다. 새로운 예술적 성취를 도모하지는 못했다. 비교적 안전해진 지금은 아웃도어 활동과 연계해 '길 위의 공연'을 도모해 볼 시기다. 예술이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기회다.

글 고재열 칼럼니스트



신선함과 진부함의 사이

청년들과 섬 여행을 많이 떠나곤 했다. 보성 장도의 마을을 지나갈 때였다. 일행 중에 큐레이터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마을 이장님이 찾아와서 통사정했다.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는 왜 벽화가 없는지 자주 물어 난감하다며 저렴하게 벽화를 그려줄 화가 좀 소개해 달라고. 그때 뒤에 있는 청년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우와! 이 마을은 소박해서 좋은 것 같아. 벽화가 없어서 정말 좋다.”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이 벽화로 관광객을 불러 모은 이후, 전국의 작은 마을이 벽화에 시달렸다. 벽화마을처럼 첫 시도는 신선하지만, 모방이 늘면서 진부해지는 것들이 있다. 랜선 공연도 마찬가지다. 초기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묘안으로 부각되었지만, 너도나도 따라 하면서 이제는 진부한 예산 소진 방식이 되었다. 신선함과 진부함이 이렇게 교차했던 이유는 랜선 공연이 단순히 온라인 중계만 한다는 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아날로그 공연을 디지털화할 때 어떤 새로움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이 부족했다. 관객이 객석에서 직접 볼 수 없으니 온라인 중계로 보게 한다는 사실에서 어떻게 기술적 새로움을 더해 관람자에게 창조적 경험을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길 위의 공연

새로운 문제는 새로운 답을 요구한다. 그 답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혁신이다. 최근 '길 위의 공연'을 여러 번 시도했다. 코로나 시기에 가능한 여행은 아웃도어 여행이고, 이런 여행에서 기획해 볼 수 있는 시도는 버스킹이었기 때문이다. 여행도 귀하고 공연도 귀했기 때문에 이들의 결합은 확실히 시너지가 있었다. '예술이 있는 여행'은 관람자뿐만 아니라 예술가에게도 의미가 있다. 예술의 장소성, 예술가와 감상자의 관계성, 예술 창조의 맥락성이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화두를 던져주었다. 특히 이제 막 무대 위의 주인공으로 홀로서기를 하는 청년 예술가들에게 예술이 있는 여행은 예술 활동의 마중물이 되어 주었다. 때로는 훌륭한 무대가 훌륭한 예술가를 만들기도 한다. 자연이 만든 무대가 그렇다. 자연의 무대를 쓰기 위해서는 공간을 무대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눈을 크게 뜨면 세상 모든 곳이 무대로 읽힌다. 무대에 맞는 아티스트를 캐스팅하면 자연이 준 축복을 공연에 담아낼 수 있다. 자연이 만들어 준 무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함께 여행을 해야 한다. 그 과정 속에서 감상자와 예술가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는 예술가에게 큰 힘이 된다. 예술가와 관계가 맺어지면 감상자는 그의 퍼포먼스를 훨씬 집중해서 보게 된다. 자녀의 유치원 공연에 집중하는 부모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여행을 통해 관계가 맺어지면 낯선 장르에도 주목하게 된다. 관계성은 평범한 사람을 예술로 이끄는 중요한 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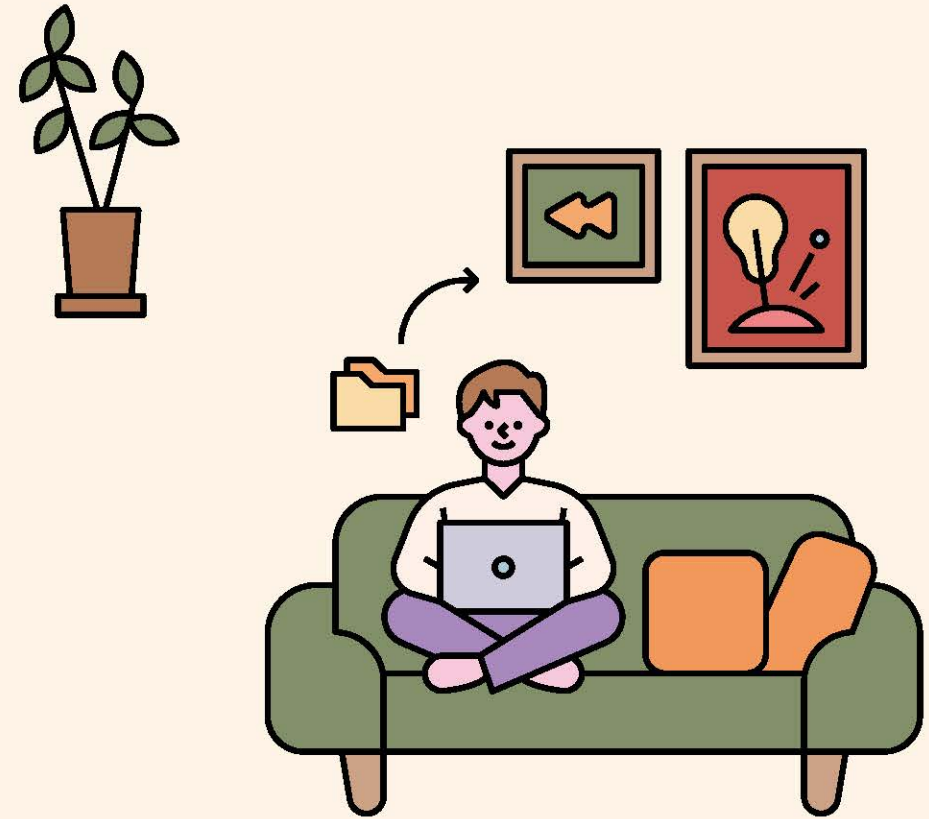
즉흥성이 가진 힘

다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예술 창조의 맥락성이다. 예술의 특성은 즉흥성이다. 여기서 즉흥성은 제멋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즉흥성이 힘을 가지려면 맥락에서 나와야 한다. 단지 가창자와 연주자의 기분만을 반영한 즉흥성이 아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맥락과 공연 장소의 특징을 알고 난 뒤 나오는 맥락은 힘이 세다. 이런 교감적인 무대는 예술가에게 창조의 힘을 준다. 코로나 와중에 길 위의 공연을 여러 편 연출했다. 남원 동편제마을에서, 문경 단산 활공장에서, 함평만의 바다 데크 위에서 장소 특정 예술을 시도했다. 이 무대에 올라 합을 맞추며 <지리산 카르멘>을 구성한 공연자들이 순창의 방랑싸롱과 제주올레축제에서 이를 변형해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몇 번 마중물을 채웠더니 기회가 제 발로 걸어오기도 했다. 어느 날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한예종케이아트크리에티브에서 주관하는 남원 동편제마을 국악거리축제와 평창 계촌마을 클래식축제의 예술감독인 그가 버스킹 여행을 연출해 달라고 제안한 것이다. 랜선 축제이지만, 실외에서 버스킹 공연을 몇 번 할 예정이고, 이를 수행하며 관람할 여행자들을 조직해 달라는 것이었다. 기쁜 마음으로 여행자들을 조직했다. 하지만 날씨는 모든 계획을 앗아갔다. 예정된 무대에서 예정된 시간에 이뤄진 공연은 한 편도 없었다. 비와 바람을 피해 평창과 남원의 이 언덕 저 언덕을 넘나들었다. '신발보다도 더 자주 나라를 바꿔 신으면서'라는 브레히트 시의 구절이 떠오를 정도로 '신발보다도 더 자주 무대를 바꿔가면서' 이뤄진 클래식과 국악의 '비긴 어게인' 버스킹 여행을 즐겼다. 여행을 통해 무대 밖 지휘를 한 셈인데,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갑자기'에서 배운 것

여행은 말 그대로 쪽대본 여행이었다. 폭우 때문에 공연 장소와 시간이 수시로 바뀌었고 지체되기 일쑤였다. 공연 관람이 여행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일정을 모두 이에 맞춰 조정해야 했다. 공연 장소가 바뀌면 가려던 음식점을 바꿨고, 일정이 늦춰지면 근처의 좋은 카페를 섭외해 잠시 쉬었고, 공연이 지연되면 우리끼리 자리를 펴고 국악과 클래식에 관한 '알쓸신잡' 수다를 떨면서 기다렸다. 결과적으로는 변화무쌍한 스케줄 덕분에 여행 연출력을 기를 수 있었다. 폭우로 예약했던 숙소마저 문을 닫으면서 잘 곳마저 사라지기도 했다. 가려고 했던 여행지와 식사하려고 했던 맛집도 공연 일정이 변동되면 포기해야 했다. 다행히 여행자들이 그런 불편한 사치를 기꺼이 감당해 주어서 의미 있는 여행을 연출할 수 있었다. 기자들에게는 그런 원칙이 있다. 기획을 배신해야 좋은 기획기사가 나온다는 것이다. 기획대로 된 기사는 좋은 기사가 아니라 평범한 기사일 뿐이다. 현장에서 포착한 사실이 새로운 진실을 들려줄 때 이를 포착한 기사는 훌륭한 기사가 된다. 현장의 진실을 바탕으로 기획을 배신할 때 좋은 기획기사가 나온다.

여행도 마찬가지다.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천시(기후)'와 '지리(지형)'와 '인화(참가자)'를 반영해서 그때그때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날씨가 맑을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고, 지형이 험할 수도 평탄할 수도, 사람들이 지쳐 있을 수도 기운생동할 수도 있으니, 그에 맞춰 일정을 바꿔야 한다. 평창과 남원의 버스킹 여행이 그랬다. 한예종이 기획한 공연담게 최고의 라인업으로 구성된 공연이었다. 이 여행에 내가 없으면 '인간의 한 수'는 클래식 지휘자와 국악평론가를 공연 해설가로 캐스팅한 것이다. 소리꾼에게 고수가 필요하듯이 좋은 공연에는 좋은 해설가가 필요하다. 이들은 낮의 공연에서 느낀 감동을 더욱 절절하게 풀어주었다. 덕분에 우리가 감동을 받은 지점이 어디에 연원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아웃도어 활동을 권장한다. 흡수나 하는 우려에 대놓고 야외 활동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이미 전국의 산과 들은 인파로 가득 차 있다. 그곳에 예술을 얹어보면 어떨까? 덮어놓고 랜선 공연만 하지 말고, 예술이 코로나를 치료해 줄 수는 없지만 잠시 잊게 해줄 수 있지는 않을까?



고재열

여행감독이자 재미로재미연구소 소장. '사람들은 여행에서 다르게 만난다.'는 생각으로 기자에서 여행감독으로 전업했다. 여행을 통한 네트워크 공유를 목적으로 여행자 플랫폼을 구축해 다양한 여행을 기획하고 있다.

생활문화로 더하는 빛나는 일상 컬처플레이트 대표 오가음



문화를 담는 그릇이라는 뜻의 '컬처플레이트'. 욕심 많은 그녀가 여러 분야의 문화를 담아내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 있다. 그녀가 기획한 '소소한 살롱', '공감살롱' 등의 화성시 생활문화 프로그램들은 새롭지만 어색하진 않다. 참여자들의 일상 속 이야기에 문화예술을 더해 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깊은 공감을 끌어내며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좋다는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화성인의 마음을 치유해 줄지 기대된다.

글·사진 차영은(기획홍보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득 담은,
로컬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화성 향남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기획자이자, 아직은 부족하지만 '크리에이터'라고 소개하고 싶은 오가음입니다.

'생활문화기획자'라는 단어를 처음 안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생활문화기획자라는 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알고 있어요. '생활문화기획'이라고 하면 문화를 기획한다는 작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생활문화 전반을 통칭하는 단어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생활문화는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 모든 것을 통합하는 문화로 가는 하나의 통로 같아요. 하이퀄리티 문화라기보다는 편안하게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이 생활문화기획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기획그룹인 '컬처플레이트'를 운영하고 계시죠. 컬처플레이트는 어떤 의미인가요?

컬처플레이트는 '문화를 담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하고 싶은 분야가 많아서 어느 하나를 규정짓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문화라는 그릇에 담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사 이름과 제 이름, 이쁜 제 명함을 보면 모두 궁금해하더라고요.

《화분》도 '문화를 담는 빛나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맞아요. 뜻이 비슷해서 정말 신기했어요(웃음). 현재 컬처플레이트는 주로 문화 기획과 영상 제작 두 분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공간 디자인, 살롱지기, 로컬크리에이터, 미디어 강의도 하고 있죠. 이 분야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 다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컬처플레이트'라는 이름이 더욱 마음에 들어요. 모든 문화를 하나에 담는 그릇이니깐요.

방송, 공연, 독립영화 제작 위주로 작업을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생활문화기획자와는 살짝 다른 방향성을 가진 직업이죠.

결혼과 함께 자발적 '경단녀(결혼과 육아로 퇴사해 직장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지칭한다)'가 되었어요.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제가 몸담은 영화 시장은 하루하루가 불안정했죠. 일은 매력적이었지만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화성과 서울의 거리를 핑계 삼아 자연스럽게 영화 일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임신과 육아를 경험하며 잠시 문화와 거리두기도 했고요(웃음).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에 문화를 향한 갈증은 점점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이가 어린이집을 갈 나이가 되니까 시간적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화성시생활문화센터에서 '생활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을 접하게 되었어요. 2기, 3기를 수료하며 생활문화기획자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화성시생활문화센터의 '2018 도이리 이틀키친: 영화가 있는 키친', '소소한 살롱' 등 많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하셨어요.

'2018 도이리 이틀키친'이 첫 시작이었어요. 영화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음식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영화 속 음식을 맛볼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사실 이 부분은 센터에서 방향 제시를 해주신 거라서 온전히 제 기획이라고 하기엔 어려워요. 그 이후 진행한 '소소한 살롱', '공감살롱' 같은 프로그램이 제 고민을 담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소한 살롱'이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소소한 살롱은 허브, 사진, 커피, 디자인을 주제로 네 명의 메이커스를 소개하고, 그분들의 철학을 영화를 통해 엮은 소셜 토크 프로그램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소통'이었죠.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에



는 새로운 포맷이라 생소해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 프로그램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저에게도 이 프로그램이 화성이라는 지역에 애정이 생기게 된 계기였어요.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의 지속가능오픈스튜디오에서 '로컬에서의 생활문화와 공간'이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셨죠. 화성의 청년으로서도 꾸준히 활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화성 청년네트워크와 로컬브릿지라는 두 가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어요.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모여 '우리가 청년으로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을까?' 등의 고민을 하고 있죠. 저는 화성에서 육아하는 청년이자 문화 기획자로 참여하며 문화 불모지라 불리는 화성 서남부 지역에서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공유하고 있어요.

다양한 지역 중 '화성'에서 활동을 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지난 3년간의 활동이 화성에 국한된 건, 제가 아이의 주 양육자이기도 하고 시간적, 거리상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언가를 배우거나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은 모두 아이가 유치원에 가거나 남편과의 시간 조율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제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했기에 지역에서 경력의 쌓일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는 제약이라 생각했는

데 지금은 그 제약 덕분에 화성만의 다양한 문화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화 생태계를 경험하면서 느낀 화성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로 활동해 온 화성 서남부 지역은 문화를 즐길 기회가 비교적 적은 지역이라 처음에는 환경에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기획자가 되어보니 오히려 기회로 인식되더라고요. 화성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라는 점이 큰 매력 같아요.

이번 《화분》의 주제는 '시간TIME'이에요. 올해, 어떤 시간을 보내셨나요?

저에게는 영화 같은 한 해였어요. 영화에는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이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저의 2020년 속에는 이 과정이 모두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콘텐츠 시장이 급성장했고, 영상 분야에 감점이 있는 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컬처플레이트 설립 이래 가장 바쁜 나날이었어요. 〈더 에이지 콘서트〉의 영상 제작을 하고, 화성도시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로컬멀티플라이와 함께 '병점 문화적 도시재생'을 진행했고, 화성시평생학습관과 마을학교 선정사업 '공감살롱' 등을 진행했죠. 지금은 절정을 지나 결말을 앞두고 있어요. 그 만큼 제겐 다채로운 한 해였어요.

앞으로 화성에서 이루고 싶은 소원 세 가지만 말해주세요.

첫째는 '제로 웨이스트'를 문화로 풀어보고 싶어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문화기획자로서, 환경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오염하지 않는 제품들로 소비하려 노력하고 있죠. 제 고민을 문화로 통해 누군가와 함께 공유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둘째는 컬처플레이트라는 그릇에 담은 것들을 온전히 풀어낼 수 있는 '월간 공간'을 운영하고 싶어요. 제가 욕심 많은 기획자라 달마다 주제를 바꿔 운영해 보고 싶은데 너무 어려울까요(웃음)? 마지막은 '크리에이터'로서 성장하고 싶어요. 생활문화기획자, 영상제작자, 공간디자이너라는 명칭보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득 담은, 로컬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꽃이라는 환한 이름으로
해바라기 작가 유상선

예술에 값비싼 포장지를 씌우는 사람들이 있다. 예술이란 잘 교육된 이들이 창조하는 어떤 고귀한 세계라고. 쉽게 만질 수 없고, 심오한 의미를 가지며, 그 자체로 빛나는 거라고. 그러나 작품은 본래 사람들 곁에 있을 때 가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유상선 작가는 흔하디흔한 해바라기 속에서 긍정의 메시지를 뿜아내어,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 속에 심는다. 그리고 희망이란 말로 환하게 피어나기를 바란다.

글·사진 김건태

당신은 누구인가요?

해바라기 작가 유상선이에요. 전업 작가가 되기 전에는 이랜드라는 기업에서 일을 했어요. 그림의 초기 멤버로 멘토였던 박 회장님의 열정 넘치는 패기를 보며 다양한 부서를 거쳐 20여 년 일한 것들이 큰 경험이 되었어요.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꿈꾸는 해바라기 작가 유상선'이라는 타이틀을 만들게 된 거죠. 그 후 우연히 커피 관련 사업에 동참하면서, 커피 창업자들에게 당시 못 먹은 커피콩으로 해바라기 그림을 그려 커피 점포의 인테리어 포인트를 만들어 준 것이 일반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계기였던 게 아닌가 싶네요.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일로 만들어준 그 일들이 기반이 되어 정식으로 작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회사에 다닐 때보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진 않지만 그림을 그리며 얻는 희열이 훨씬 커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꿈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잖아요. 청년 시절 추송웅이라는 연극배우와 대화한 적이 있는데요. 예술을 하고 싶다는 저에게 피카소가 되고 싶은지, 고흐가 되고 싶은지 묻더라고요. 피카소는 당대의 미술가로 부와 명예를 가지던 사람이고, 고흐는 정신이상자 소리를 들으며 살다가 후대에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피카소를 선택했죠. 살아생전 인정을 받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요. 그때 그분과의 대화는 제가 작가 생활을 하며 늘 마음에 두고 있어요. 저는 미술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작가 생활을 오래 하지도 않았지만 이 일이 저에게 잘 맞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제껏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하다가 드디어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거죠. 저 자신을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길이기엔 후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 유상선, 소중한 사람들

당신은 어떤 작업을 하나요?

해바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회사에 다닐 무렵이에요.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무작정 떠난 시골 마을에서 우연히 해바라기를 마주했어요. 길가에 핀 해바라기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니 마음이 편안해 지더라고요. 그때의 기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해바라기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저를 반기던 해바라기처럼 사람들에게 희망과 축복을 주고 싶다고 말이에요. 누구나 일상에서 잘 통하는 것들에게는 우호적이지만 통하지 않는 것에는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럴 때 자신을 반기고 소통할 수 있는 해바라기를 떠올렸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이제껏 천여 점의 해바라기 작품을 그렸어요. 작업 방식은 그때 그때 다르지만 보통은 바탕 위에 커피콩이나 볼트, 실리콘 등의 재료를 사용해 입체적인 모양을 잡으며 시작해요. 그 위에 유성 물감과 아크릴 물감을 섞어 색의 조화를 고민하죠. 하나의 소재를 변주하면서 각각의 메시지를 달리하려 노력해요. 가령 요양원에 보낼 해바라기의 경우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에 어울리는 색감과 모양을 고민하고, 막 결혼을 한 부부에게는 더욱 화사한 색감을 써서 긍정의 메시지를 톤보이게 하죠. 그러니까 천 개의 작품은 결국 모두가 개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셈이에요.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고 울컥한다거나 희망을 얻었다고 말할 때 기뻐요. 그들은 제 설명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죠. 그런 반응을 마주하고 나면 사소한 멘트 하나도 긍정적으로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은 어떤 공간에 머무나요?

첫 작업실은 매일 해가 보이는 부산 바닷가 근처에 있었어요. 그때 작업실에서 기억에 남는 풍경이 하나 있는데요. 자정이 가까운 시각, 한참 작업을 하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택시기사였는데 손님을 태우고 지나던 길에 그림을 보고 다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연인즉 아내가 가게를 오픈했는데 해바라기 그림을 선물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가격을 묻기에 “이 작품은 100만 원, 이 작품은 200만 원” 하고 작품의 가격을 말했죠. 그러자 풀이 죽은 목소리로 “일당이 10만 원인데 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묻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에 원하는 걸 골라보라고 했는데 쉽게 고르지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일당을 받아서 다시 온다기에 기다렸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느낀 것은 그림이란 재능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공유할 수 있을 때 가치를 갖는다는 거였어요. 작품을 쌓아놓고 있어 봤자 작가 혼자 즐길 뿐이잖아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전시하고 남은 그림을 고아원에 기증했어요. 그림이 의미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요. 그렇게 5년간 작업실을 운영하다 사정상 공간을 비우고 한동안 자리를 잡지 못하다가, 올해 3월부터 이곳 화실에 새로운 터를 마련했어요. 지인의 도움으로 공장 부지 안에 컨테이너 두 동을 올려 작업실 간판을 달았죠. 공장화 예술이라는 조합이 낯설다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블루칼라’라 불리는 공장 사람들에게 제 작업실이 예술의 편견을 깰 수 있는 공간이길 바라요. 밥을 먹다가도 자연스럽게 작품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좋겠죠. 사실 아직은 작업실이 좁고 외진 곳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진 못해요. 조용히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 좋지만, 한편으로 조금 더 대중과 가까워졌음 하는 바람이에요. 여건이 된다면 더 깔끔하게 공간을 꾸미고 커피와 갤러리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늘 대중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바람이 있으니 언제 또 저의 공간이 바뀔지는 모르는 일이겠죠.





경남신문사 ©
경남신문사 ©

THE 가다

WALK
작가 김현진과의
산책

FEATURE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연말 문화 데이트

TICKET
최소리의
소리를 본다 展

SKETCH
마음껏 즐기는
콘서트

CHECK
고즈넉한
비밀 코스

언덕에서 작가 김현진과의 산책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르고 누가 만들어 냈는지도 모르는 곳. 이름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대신 부르는 모든 소리가 이름이 되는 장소. 사람들이 그저 스쳐 지나는 언덕을 한 사람은 잊지 않고 종종 찾아간다.

글·사진 전진우

봉담읍 와우리

선택이 늘 중요한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선택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것이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름과 성별, 태어난 곳과 자란 곳. 몇 가지만 생각해 봐도 그렇다. 의식과 취향이 모양을 갖춘 후에 우리는 이름을 새로 짓기도 하고 성별마저 새롭게 인식하기도 하지만, 또 고향의 정의도 다시 내려보지만, 그 모든 것의 배경은 '선택하지 못한 것'으로 채색돼 있기 마련이다. 내가 선택하지 못한 것들이 끝끝내 나를 관통하고 있다니, 그런 생각에 한편으로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묘한 편안함이 느껴진다.

김현진 작가는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서 유년을 보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듯 부모님이 살던 곳이 그에게도 고향이 되었다. 등하교를 하며 지나던 길,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하던 장소, 달리기를 하던 구간이나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길. 그곳의 풍경은 자연스럽게 그의 몸과 마음에 자곡자곡 쌓여 있을 것이다.





내가 지나던 길

“등하교를 위한 제일 빠른 길이 있었어요. 지나온 길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이었는데요. 정확한 길 이름은 모르지만, 지도에서 찾아보니 ‘임광3차중문’이라는 버스 정류장이 나오네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일상에서의 환기가 필요할 때 한 번씩 찾아가곤 했어요. 반려견과 함께 들르기도 하고요. 와우리에서 하늘을 가장 넓게 볼 수 있는 곳이어서 공군이 에어쇼를 할 때 한참 앉아서 구경하던 추억도 있어요.”

그가 알려준 언덕에 찾아가 보니, 언뜻 작은 꼬마가 서 있는 풍경을 떠올려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다 커버린 내 눈에는 허름한 집 몇 채와 오래 자란 나무들이 보일 뿐이었다. 군데군데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그곳은 이제 마을이라는 작은 이름도 붙이기 어려웠다. 등 뒤로 빼곡하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 내는 긴 그림자들이 하루에도 몇 시간이나 그곳을 그물처럼 덮고 있을 것이다.

시간은 금세 오후 4시가 되었다. 하룻길을 가득 채우는 학생들 무리를 멀리서 바라보다가 나는 마을 쪽으로 걸어갔다. 골목이 시작되기 멀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였다. 자고 있다가 놀라는 고양이들과 사람 손길이 닿은 작은 물건들이 자분한 생기를 느끼게 했다. 집 안에서와 다를 바 없는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얘기를 나누는 할머니들도 있었다.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더니 싫다고 해서 내가 허탈하게 웃었더니, 할머니들이 놀리듯 따라 웃었다. 이 풍경들은 나의 것이 아니었지만, 잠시 그의 기분을 상상해 볼 정도가 돼 주었다. 또 한편 내 유년의 골목은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일게 하기도 했다. 잠시 상상한 것만으로도 그 장소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누가 나를 그곳에 데려다주면 나는 그 장소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 운 좋게 장소들이 거의 변하지 않았더라도, 사는 동안 내 머릿속의 오래된 기억들이 변해 버려서 일치되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다.

“특별히 좋았다는 날을 기억하기보다는 그곳에서의 물과 바람, 언덕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바쁜 삶을 바라보고 즐기며 돌아갔던 날들을 기억해요.”

김현진 작가도 어쩌면 유년의 기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없어지기 전의 풍경, 현재 삶의 대비되는 그 분위기를 느껴보려고 이곳을 찾는 게 아닐까. 그런 것이라면 친구가 아니라도, 서로 얼굴을 모르더라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 사라져 가는 이 마을이 커다란 정류장처럼 느껴졌다.

풍경이 그림이 되는 과정

“어느 할아버지가 언덕까지 식탁 의자를 가지고 나오셔서 해 지는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며 사색을 즐기던 모습이 기억나요. 그게 이곳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에요. 그 풍경이 많은 생각을 하게 했죠.”

고양이가 더 없나, 혹시나 내가 앉으면 다가와 줄 녀석들은 없나 살피며 걷고 있을 때, 한 노인이 거짓말처럼 의자를 가지고 나와 길 한쪽에 나를 등지고 앉았다. 나는 멈춰 서서 작가가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렸다. 1분 정도의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렀다. 멀리서 봤을 때와는 또 다르게, 그 풍경은 작지 않았다. 내 마음이 액자가 되어 그 순간을 소중히 여겨서일까. 풍경은 그림처럼 프레임 안을 콕콕 채웠다. 골목 끝까지 걸어갔다가 마을 입구로 되돌아가는 길에 봤더니, 멀리서 할아버지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가 앉아 있던 짧은 시간, 아파트 그림자가 마을을 가리지 않는 시간. ‘잠깐’이라는 것은 여러 모로 유년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현진

단국대학교에서 조소를 공부했다. 대체로 작가의 삶과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작업으로 옮긴다.

삶의 어우러짐을 표방하듯 작가와 작품, 관객의 어우러짐을 연결하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김현진 작가의 작은 소망이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연말 데이트

벌써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 올 한 해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느라 사시사철 매력적인 계절의 변화를 만끽하지 못했다. 이번 연말은 가족, 친구, 연인과 특별한 선물을 나누며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글 최영은(기획홍보팀)

© 노트에이스

반짝임과 함께하는 기분 좋은 데이트 단 하나뿐인 주얼리



© 루브스튜디오



이 세상에 없는 특별한 주얼리를 갖고 싶다면, 동탄2신도시에 있는 '루브스튜디오'를 방문해 보자. 이곳은 직접 만든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커스텀 주얼리 마스터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커플 팔찌, 선개저, 비즈 반지 만들기 등의 다양한 수업도 진행한다. 일 년 동안 수고한 우리를 위해, 또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보상으로 하나뿐인 주얼리를 만들어보자.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친구와 함께한 추억을 주얼리 속에 고이 담아보아도 좋겠다.

언제 특별한 아이템을 만들고 싶은 날에 어디서 루브스튜디오(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646-2 메가비즈타워 A 908) 누구와 사랑하는 연인, 친구와 문의 카카오플러스친구 '루브스튜디오'

가족과 함께하는 달콤한 데이트
직접 만드는 디저트



© 달콤키친

가족과 함께 달콤한 디저트를 즐기며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 보자. '달콤키친'은 다양한 디저트 판매뿐만 아니라 디저트 만들기 수업도 운영하고 있다. 수업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참여 가능하며, 참여자가 두 명 이상이라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 쿠키부터 머랭쿠키, 아이싱쿠키, 마들렌, 타르트, 케이크까지 만들고 싶은 디저트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쾌활한 선생님과 함께 디저트를 만들고 나눠 먹으며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어보자.

언제 따뜻한 연말을 앞두고
어디서 달콤키친(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2-21)
누구와 달콤함을 나누고 싶은 가족들과
문의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달콤키친', 010 7415 7909

연말에 어울리는 따뜻한 인테리어
마음을 전해주는 마크라메



© 노트드레이스

실과 매듭의 조합으로 따뜻한 느낌을 전해주는 마크라메 소품은 연말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소품이다. 마크라메는 서양식 매듭 공예로, 뜨개바늘로 만드는 뜨개질과는 달리 아무런 도구 없이 오로지 손으로만 매듭을 엮어 만들 수 있는 기법이다. 준비물도 실과 가위, 줄자, S고리로 비교적 간단하다. 손으로 사부작거리며 만드는 마크라메는 모든 잡념을 떨치고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 올해도 수고한 나를 위해, 또 내 옆을 지켜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마크라메를 한 울, 한 울 엮으며 안 좋은 기억은 지워버리고 행복한 기억만 생각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길 추천한다.

언제 잠념을 떨치고 싶은 날
어디서 노트드레이스(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축전로1길 22-3)
누구와 올해도 수고한 나 자신과
문의 0507 1311 5954

TICKET

두드림으로 그린 소리 최소리의 소리를 본다 展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비우는 것이 중요한 순간이 있다. 작품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직면한 순간에서 한 발짝 물러나, 곧두서 있던 온몸의 신경에 힘을 살짝 뺀 뒤, 멈춰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작가와 내가 마주치는 행위가 아닐까 싶다.

글 박한진(지역문화팀) 그림 제공 아트인용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와 에너지에는 각기 그들만의 소리가 있다.
나는 그 소리를 전달하는 메신저이고 싶다.”

-최소리 작가 노트



소리를 본다(from space to cell m2), 캔버스에 혼합재료, 2020

파장과 파장 사이의 침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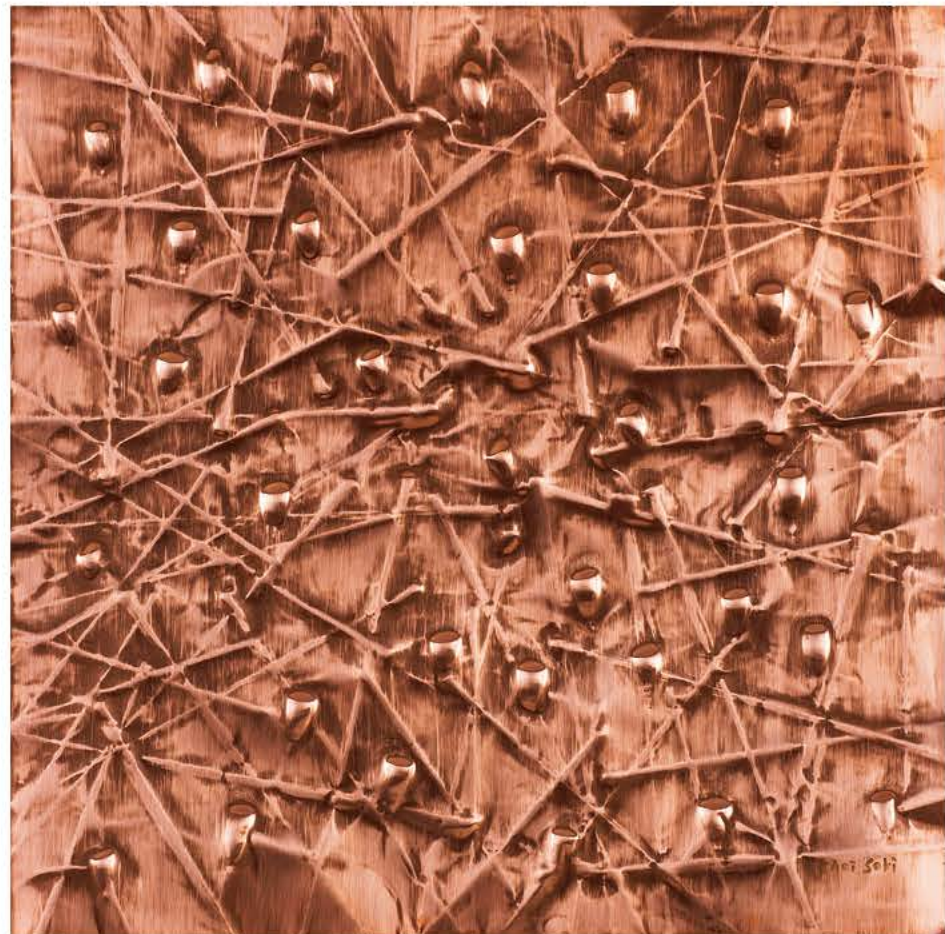
한바탕 홍수로 인해 섬전강이 범람하고 온 대지가 뒹흔들렸던 지난여름, 하동문화예술회관 <최소리의 소리를 본다 展>의 모니터를 위해 왕복 10시간의 여정에 올랐던 적이 있다. 하동역 밖으로 펼쳐진 쟁쟁한 날씨와 태평스레 흐르는 섬전강의 물줄기는 불과 얼마 전 대지의 두드림으로 모두를 집어삼켰던 거인의 천둥 같은 외침이 아닌 고요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고요는 하동의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산산이 깨부수어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소리인지도 알 수 없는 울림의 파장들이 합쳐져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한 그 찰나, 나는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작가와 직면했다. 파장과 파장 사이에 갇혀 버린 듯한 그 정적. 끊임 없는 진동과 고요의 반복.

소리를 이야기하다

최소리 작가는 2007년 <최소리의 소리를 본다 展>를 개최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소리를 본다'라는 주제로 '나의 소리, '우리'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물체와 에너지는 고유한 소리를 갖고 있다.'는 작가의 표현은 시리즈 전시를 포함해 작가 자신의 예술 활동과 작품을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이기도 하다. 그중 백두산의 전 멤버이자 전 세계 200여 개 도시에서 연주한 타악 솔리스트이기도 한 그는 '두드림'을 이용한 강렬한 퍼포먼스와 작품을 연결해 알루미늄판, 동판, 황동판, 종이, 캔버스 등을 연주하는 것을 비롯해 채색, 부식, 그라인딩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미술평론가인 박영택 경기대 교수는 최소리 작가 작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동안 금속(드럼)과 천의 피부(북)에서 다양한 소리를 뽑아낸 최소리는 아예 금속과 천의 표면 그 자체에 다양한 표정, 질감을 적극적으로 시술해 놓았다." 또한 작가의 활동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체와 스틱 및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사각형의 평면 전체를 공략하면서 특정 지점을 타격해서 구멍을 내거나 스크래지를 발생시킴으로써 평면은 부조나 입체적 효과로 환생하면서 회화이자 동시에 요철 효과로 자글거리는 일종의 조각이 됐다."고 평가했다. 즉, <최소리의 소리를 본다 展>는 세계적인 타악 솔리스트이자 뮤지션이자 화가인 최소리 작가가 평생 음악으로 전달하던 소리에 대한 탐구를 미술의 영역으로 옮겨낸 실험적인 미술창작 전시인 것이다. 두드림은 진동으로 주위를 흔들고, 그 두드림이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형태로 탄생한다. 그 탄생의 정적 속에서 또 다른 나의 소리를 마주하는 시간을 화성시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이 전시를 통해 느껴보았다.



소리를 본다, 60x60cm, 동, 2017



소리를 본다(from space to cell m1-1), 캔버스에 혼합재료, 2020

아티스트 최소리

그가 음악에 드림을 지듯이 리듬에 맞춰 철판을 향해 내리치는 모든 행위들은 예술의 표현형식을 완전히 해체한 전위적인 형태의 새로운 창작 행위이다. 마치 플렉서스 운동처럼 다이내믹한 요소를 철판 위에 각인시키는 행위는 전통적 미학에서의 조형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미술까지 한 번에 제시한 것처럼 독자적이다. 즉, 최소리는 2차원에서 논의되던 관념적 세계를 평면으로 표현하면서 구호에 그쳤던 음악과 미술의 만남을 현실적인 3차원 공간 안에 구축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 김종근, 미술평론가

작가 최소리는 즐겁고 행복한 '樂'의 정신적 상태와 어깨춤이라도 덩실거릴 육체적 '興'에 취하는 신명에서 파생된 樂&興이라는 우리 고유의 미의식을 지닌 초유의 무인입니다. (중략) 그의 예술적 욕망의 본질과 근원은 예술 장르에 상관없이 동일하며, 다만 구현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 장현근, 에코라크갤러리·에코캐피탈 대표이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20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최소리의 소리를 본다: 두드림으로 그린 소리 展>

일시 11월 10일(화)-12월 6일(일) 10:00~18:00, 월 휴관

장소 화성시생활문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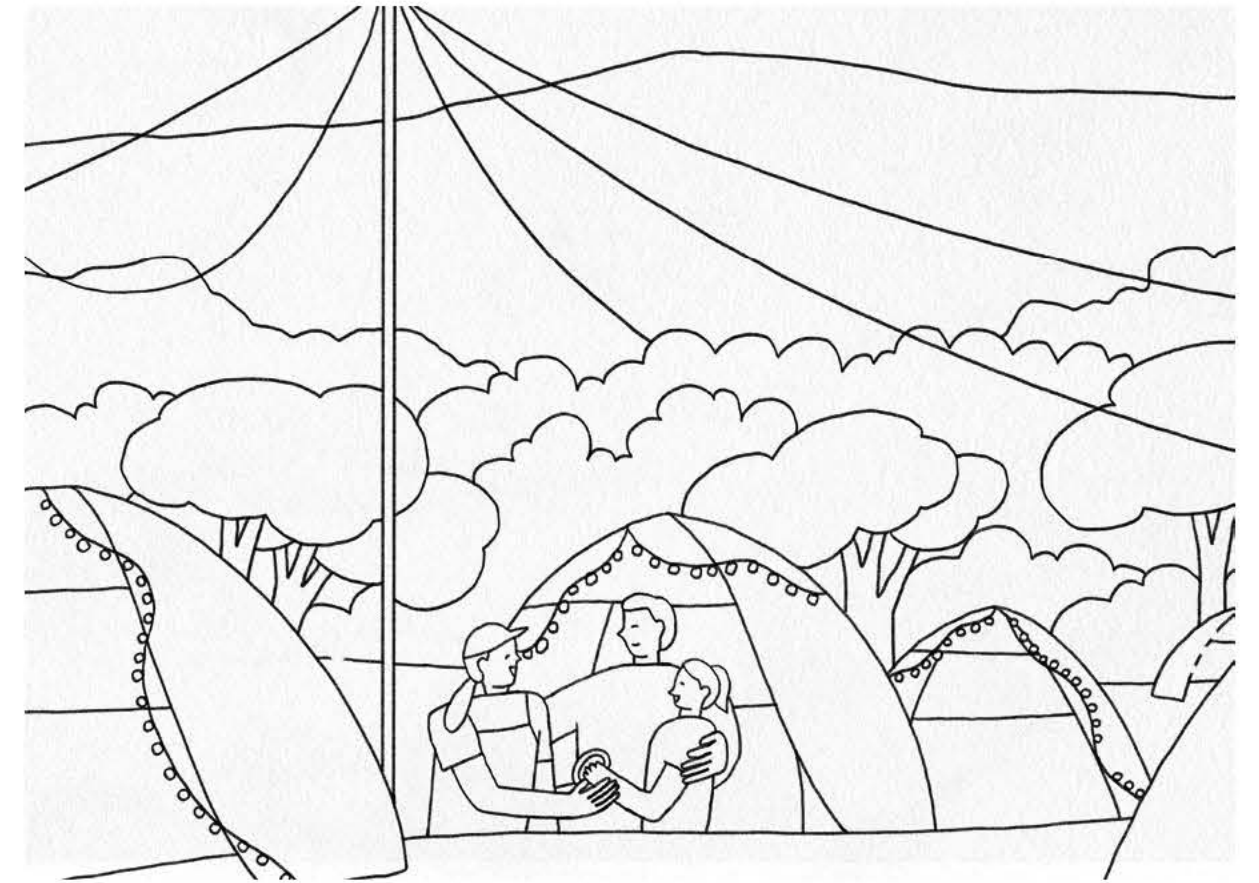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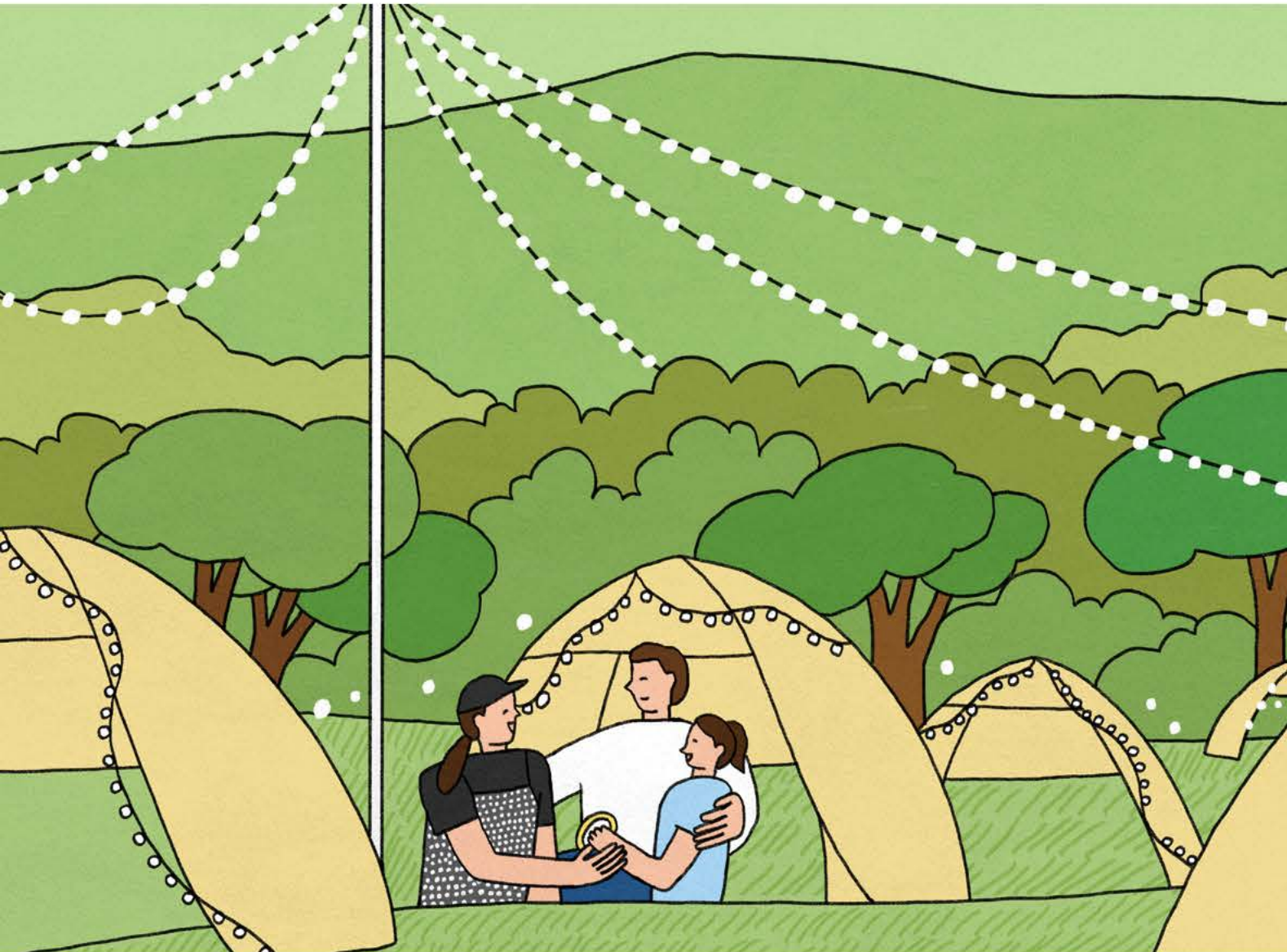
입장료 무료

문의 지역문화팀 031290 4692, 아트인동산 010 89410344

화성을 그리는 방법 마음껏 즐기는 콘서트

푸른 숲과 높은 하늘, 그 속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행복한 웃음을 짓는 사람들. 언제나 곁에 있을 것만 같던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 화성에서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연이 펼쳐졌다.

에디터 김채은 일러스트 박영주



〈텐트콘서트〉

매 공연마다 오픈과 동시에 매진을 기록하는 화성시문화재단 야외 공연장의 대표 프로그램. 이번 〈텐트콘서트〉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시민들이 야외에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텐트와 텐트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뒀, 안전하고 아늑한 공연 관람이 가능하다.



© 화성시문화재단

채색 방법

재료 아이패드 또는 유성펜, 컬러 마커, 색연필, 종이

1 상상하기

콘서트를 즐기고 있는 가족의 행복한 마음을 상상한다.

2 선으로 그리기

아름다운 풍경과 아기자기한 텐트를 중심으로 스케치하고, 그 속에서 즐기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린다.

3 채색하기

푸른 숲과 반짝반짝 빛나는 조명의 색을 구분해 색칠한다.

CHECK

시간에 보태는 정성 고즈넉한 비밀 코스



나만을 위한 시간을 정성스레 꾸리는 날이면 잘 살고 있다는 안도감이 든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시간은 금이다'라는 속담은 불변의 가치 이지 않을까.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1분 1초에 정성을 보태보자. 오늘은 어제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확신이 생길 테니.

글 이주연



© 글린정원

향긋한 시간

글린정원 ☕

'정원'이라는 단어에는 다정한 기운과 따뜻한 분위기가 스며 있다. 정성스러운 손길과 푸근한 자연이 머무는 자리. 내 영혼이 쉬어 갈 작고 깊은 정원이 동탄에 자리 잡았다. 맛있는 음식과 향기로운 꽃이 한데 어우러진 '글린정원'은 따뜻한 마음을 품기에 딱 좋은 공간이다. '올데이 브런치 카페'라고 명명한 이곳에는 푸짐한 음식과 기분 좋은 디저트, 마음을 도닥여줄 음료가 풍성하고, 눈길을 사로잡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반가운 자태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 아름다운 정원에서 한 끼 식사를 하고 나니 아주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너그러운 마음과 정성스러운 손길을 양껏 느낀 덕이다.

A.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프리미어 동탄 2층

O. 월~목·일 11:00~21:00, 금~토 11:00~22:00(브레이크타임 17:00~17:30)

정갈한 시간

Ur:coffee ☘



© Ur:coffee

투명한 유리잔, 새하얀 식기, 스테인리스 접시... '유알커피Ur:coffee'에서 내어주는 식기에는 별다른 무늬나 색깔이 없다. 가장 간단한 식기에 제맛에 충실한 재료들이 소복하게 쌓여 있는 모습에서 오묘한 균형감이 피어난다. 유알커피가 건네는 쟁반 위 먹거리는 잘 빚어놓은 오브제처럼 곳곳하고 감각적이어서 시간을 들여 가만히 들여다보게 된다. 과한 장식, 불필요한 데코레이션을 덜어내고 딱 좋을 정도의 재료들을 충충이 쌓는 이곳. 넘쳐나지도, 비어 보이지도 않는 정도를 아는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오늘이 못내 기쁘다. 찬찬히 지난날을 곱씹으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다.

A. 경기도 화성시 동탄자성로 17 1층

O. 월~금 08:00~21:00, 토 11:00~22:00, 일·공휴일 11:00~21:00



© 플라워스튜디오 오늘

정돈의 시간
플라워스튜디오 오늘 🌸

식물이란 그저 바라만 봐도 좋지만 직접 만지고 가꾼다면 더욱 큰 애정이 피어날 테다. 누군가를 떠올리며 꽃을 한 송이, 두 송이 엮어내는 아리따운 마음을 플라워스튜디오 '오늘'에서 배운다. 같은 꽃을 다루어도 제각기 다른 다발을 만들어내는 모두의 손놀림은 다정한 향기로 가득하다. 특별한 누군가를 위해 주문도 받는 플라워스튜디오 오늘은 세상에 하나뿐인 다발과 식물을 공들여 엮는다. 단 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꼼꼼한 식물은 어쩔 이리 푸근한지, 플라워스튜디오 오늘에서 마음을 정돈하며 시간의 흐름을 선명하게 느낀다. 아주 향긋하고 다정한 시간을.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데서 받는 위안이 이토록 크고 아름다웠던가.

A.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56



© 동탄센트럴파크

거니는 시간
동탄센트럴파크 🌳

가벼운 산책은 마음을 다지는 데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다. 자연스럽게 자라난 나무와 걷기 좋게 만들어진 길, 주변을 둘러싼 사계절의 향기가 몸과 마음을 한층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화성시의 공원 중 오늘은 '동탄센트럴파크'를 걷고 싶다. 계절의 빛깔을 담백 안은 이 공원을 거닐며 좋았던 기억을 꼼꼼히 씹는다. 그날의 웃음이 얼마나 어여웠는지 떠올리고, 나쁜 기억을 하나둘 날려 보내며 내일로 한 걸음 바짝 다가간다. 시간대만 잘 맞으면 솟구쳐 오르는 분수도 볼 수 있는 이곳. 자연 곁에서 마음을 비우고 채우며, 큰 숨을 내쉬면서 기분 좋은 평화를 찾는 날! 삶에 있어 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깨닫는 하루다.

A.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59



THE 하다

HELLO
화성시문화재단
사람들

LIST
타임머신이 간절한 사람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PEOPLE
화성인의 시간

CULTURE & ISSUE
11-12월 문화소식

LETTER
화성시문화재단이
전하는 이야기

©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문화재단 사람들 맑고 깨끗하게, 자신 있게



청년들의 시간은 느리고 길게 흐른다. 두 눈이 맑게 빛나는 화성시문화재단의 인턴들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들의 유쾌한 기운을 받아 내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눴다.

글 김지수 사진 강현숙 장소 협조 카페 쉬시오

좌 김지희 우 심유빈

용기를 부리며 나를 지키는 일

만나서 반가워요. 각자 자기소개로 시작해 볼까요?

김지희(이하 '지') 화성시문화재단 지역문화팀에서 '김 주임'과 '지희 씨'를 맡고 있는 김지희입니다(웃음). 올해 6월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벌써 5개월 자가 됐네요. 저는 '비대면 예술 키트'를 개발, 운영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어요. 요즘은 화성시 서남부 지역의 여러 장소를 방문해, 키트를 전달하고 있죠.

심유빈(이하 '유') 입사 8개월 차 총무팀 인턴 심유빈입니다. 요즘은 유연근무제 관련 데이터 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인사 발령이 새롭게 나서, 오전에는 새 명함과 사원증 제작 업무로 바쁘게 보내고 왔네요.

두 분 다 어떤 계기로 재단에 입사하게 되었나요?

지 대학에서 세라믹디자인을 전공했어요. 4년 동안 쓰던 앞지마엔 빨래 한 번 할 새 없이 매일 흠 칠갑이 되어 있었죠(웃음). 전공을 공부하면서 작품 완성이 주는 통쾌함과 해방감도 좋았지만, 부전 공저럼 함께 이수한 문화예술학이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이거대!' 싶었죠. 그때 한참 버킷리스트를 쓰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문화재단에서 근무하기'였어요. 때마침 좋은 기회가 있어 지원서를 냈고, 나름 쟁쟁한 경쟁률을 뚫고 재단에 입사하게 됐어요.

유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 학원 데스크 아르바이트를 꽤 오랫동안 했어요. 3년 동안 다양한 직원들의 인수인계를 맡으면서 각자 일을 하는 동기가 다른 것에 호기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인사 관련 직무에 끌리게 됐죠. 우연히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인턴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발견했고, 망설임 없이 바로 지원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화성에 살았는데 지원 자격이 화성 시민이더라고요(웃음).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저에게 문화재단은 늘 신나고 흥미로운 곳이란 인상이 있어 기대가 되기도 했고요.

첫 출근 날은 어땠나요?

유 많이 긴장되고 떨렸어요. 첫 직장 생활이라 많은 상상을 했어요. 드라마 <미생>의 한 장면을 떠올리기도 하고(웃음).

지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첫 사회생활은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느낌이었죠(웃음).

유 맞아요.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눈지도 엄청 봤고요. 게다가 저는 긴장하면 말이 잘 안 들리고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습관이 있어 첫날엔 무조건 다 적어서 외우겠다는 마음으로 출근했어요. 작은 수첩에 무엇이든 받아 적고 집에 가서 복습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 저는 그럴싸한 어른 같이 보이는 옷이 뭘까 며칠을 고민했어요. 결국엔 옷장에서 자주 입던 티셔츠를 입고 첫 출근을 했어요. 가장 편한 옷을 입어야 가장 나다워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좋아하는 옷을 입고 제가 누구인지 소개하는 순간이 감동스럽기도 했어요.



© 화성시문화재단



입사 후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궁금해요.

저 첫 월급이 통장으로 꽂혔을 때(웃음)? 제가 꿈꾸던 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성취감에 참 좋았어요. 유 꼼꼼하게 일 처리를 했을 때 뿌듯함을 느꼈어요. 총무팀 업무가 눈에 띄는 일은 아니지만 회사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반대로 모든 게 처음이라 고민한 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일하면서 힘들었던 일은 되도록 빨리 잊어버리려 하는 편인데, 그래도 떠올려보면 입사 후 첫 출장 날이 생각나요. 면허 딴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초행길인데다 시골길이라 큰 부담이 됐어요. 그래도 이젠 출장 전날 자에서 들을 플레이리스트를 정리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만큼 대담한 운전자가 된 것 같아요. 유 입사 후 한 달이 되었을 때 임파선염에 걸렸어요. 당시에 코로나가 한참 심하던 시기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음 앓이를 많이 했어요. 차라리 임파선염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몸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 다른 직원분들께 피해를 줄까 봐 정말 무서웠어요.

힘든 와중에 안식처가 되었던 존재가 있나요?

유 아무래도 저희 총무팀 선배님들께 많이 의지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저는 안식처에 있는 셈이네요(웃음). 제가 모르는 것들을 계속 여쭙보는 게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늘 한결같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첫 회사 생활에서 좋은 선배들을 만나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매일이 감사해요. 이런 회사 또 있을까요! 저 저는 아무도 없는 회사에 혼자 앉아있는 순간이 좋아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야근을 하다가 잠깐 테라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멍하니 앉아 있던 적이 있어요. 그때의 시간이 마음 깊이 남아 있어요. 어떤 곳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에 회사라는 공간이 포근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꼭 한 번씩은 늦은 밤까지 회사에 머물고 싶어져요.

입사 초기에 상상하던 '나'의 모습이 있나요? 회사 안에서 어떤 모습이고 싶었는지, 각자 품었던 바람이 궁금해요.

유 '알잘딱깔센(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를 줄인 신조어)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든 딱 부러지게 잘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그런데 처음부터 모든 면에서 유능할 수 없는 거잖아

요, 요즘은 처음엔 당연히 서툰다는 걸 받아들이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로 제가 바라던 모습과 가까워지는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해요. 초반에 막내, 인턴, 신입을 무기로 재단 선배님들께 참 많이 여쭙본 것 같네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요. 저 저는 사실 기대하는 바가 없었어요. 목표를 정해두고 이루지 못하면 저 자신에게 너무 실망할 것 같아 일부러 더 기대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저 지금 제 모습 그대로 지켜갈 수 있길 바랐어요. 가지고 있는 것은 그대로 펼쳐내고, 채울 수 있는 것은 넘칠 만큼 담을 수 있는 시간이길 바랐죠. 한편으론 어떤 일을 하게 돼도 그저 행복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상상하던 바를 이룬 것 같네요.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하며 변화한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유 처음 하는 사회생활을 상상하면서 늘 두렵기만 했어요. 그런데 막상 경험해 보니 이곳도 다 사람 사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웃음).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겁먹었던 생각이 들어요. 절대 못 해낼 것 같던 일들을 해내면서 용기 부리는 법을 배웠어요. 저 사소하지만 가장 달라진 점은 아침해를 맞이하는 태도예요. 세라믹을 배우며 용기장으로 살 땐 밤을 새면서 불규칙한 일상을 살았거든요. 지금은 해가 뜨기도 전에 블라인드를 올리는 아침형 인간이 되었어요.

화성 시민으로서, 그리고 화성시문화재단의 일원으로서 화성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청년의 시선으로 훗날이 도시를 상상해 본다면 어떨까요?

저 화성은 제가 머물던 도시 중에 가장 정의할 수 없는 곳 같아요. 어느 동네는 옛날 그대로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곳은 게임 속 가상 현실처럼 번지르르하거든요. 일맥상통하진 않지만 같은 범주에 속해 있는 화성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궁무진한 곳으로 더욱 성장할 거예요. 유 화성은 산과 바다, 도시까지 어떤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울인원' 도시예요. 최근엔 해외에서 화성시를 세계의 유망한 도시 중 하나로 꼽았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으니, '국제 스마트 에코' 도시라는 타이틀이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거듭날 거라고 생각해요.

호기로운 질문을 던져 볼게요(웃음). '청년에게 첫 회사 생활이란 ○○○대!'

저 3분 57초대! 대부분의 유행가는 꼭 아슬아슬하게 4분을 넘기지 않잖아요. 저는 그게 꼭 청년인 우리의 시간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완성까지의 준비 과정을 담아낼 만큼의 여유로운 시간은 아니지만 결과의 잣대를 들이밀기에 부족한 시간은 결코 아니죠. 마치 회사 생활 안에서 우리들의 시간이 3분 57초 같아요. 유 '도르래'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도르래는 힘의 작용 방향을 바

꾸거나 좀더 작은 힘으로 물체를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된다고 해요. 첫 회사 생활을 하며 예상치 못한 꿈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또 원하던 것을 이루어 더 큰 목표를 세우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죠. 첫 회사 생활은 청년에게 도르래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끝으로 먼 미래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저 언젠가는 여성 작가들의 창작 과정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후원 기업을 만들고 싶어요. 재능이 있지만 도움받을 곳이 없어 꿈을 포기하는 친구들을 자주 봤어요. 각자가 가진 재능을 한데 모아 놓고 다양하게 멋진 작업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단체를 운영하고 싶어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제 성공이 가장 시급하겠죠. 언젠가 꿈을 이룰 날을 위해 이곳저곳에서 노력하고 싶어요. 유 실은 아직 뚜렷한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걱정이예요. 지희 씨의 꿈이 멋지게 들리네요(웃음). 그래도 지금,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분명 기회를 잡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를 잘 살면서 정답 없는 미래를 상상하는 순간이 설레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질지 무척 기대하고 있어요.



타임머신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연말을 앞두고 어김없이 애뜻함이 스민다. 지난 시간과 장면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마음 한구석에 남은 아쉬움을 어루만진다.

글 하나

아주 조금 더 간절한 것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초엽, 허블, 2019



“딥프리징은 우주 개척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도 필요했지만 의료계에서도 수요가 있었어. 당시는 새로운 질병에 대한 치료법이 날마다 쏟아져 나오던 때였으니까. 아무리 치명적인 병을 앓는 환자라도 한 10년쯤 얼어 있다 깨어나면 누군가가 해결책을 찾아두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던 시대였지. 마치 인류 지성의 황금기를 보는 것 같았더니깐.” 과거를 이야기하는 안나의 눈은 반짝거렸다. 남자는 그녀가 말하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속으로 헤아려보았다. (중략) “하지만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한다네. 설령 알고 있었더라도 막상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해왔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슬렌포니아로 갈 수 있었을까? 고민해봐도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없네. 물론 해봐야 의미 없는 상상이긴 하지만.”

남자는 곧 철거될 우주 정거장에 버티고 앉은 안나가 곤란하다. 그는 제3행성 슬렌포니아를 기억하지 못한다. 운항이 끊긴 지 오래된 그 별에는 안나의 가족들이 있고, 미처 별에 닿지 못한 그녀는 빈 정거장에 멈춰 있다. 안나는 ‘딥프리징’ 프로젝트 성공을 코앞에 두고 가족을 다른 별로 먼저 보냈다. 그 무렵 의료계와 우주 개척 산업은 설 새 없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다. 그녀가 역사를 바꿀 새 기술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날, 지난 기술로 비효율적으로 여겨지게 된 우주선들은 마지막 출항을 나섰다. 안나는 인류 역사에 이바지할 한 걸음을 내딛는 대신 가족의 걸음으로 가는 길을 잃은 것이다. 오래된 우주 정거장에 앉아 아득한 우주를 바라보며 노인은 스스로 묻는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가족에게로 갈까. 그러나 오랜 세월 한곳을 바라보며 그리워한 끝에 그녀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다.

삶의 중요한 순간에 확신에 찬 선택을 하고, 그 결정을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우리가 고르는 것은 ‘최선의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간절한 것’일 때가 많다. 게다가 그 ‘조금’이 51대 49 정도의 아주 미미한 차이라면 어떨까. 돌아보았을 때 아쉽지 않은 선택은 드물지만, 잃어버린 것과 남긴 것을 바꿨어야 했다고 말하는 일도 쉽지 않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에 손을 뻗는다.

MOVIE

저마다의 골든에이지

〈미드나잇 인 파리 Midnight in Paris〉, 2011



© 미드나잇 인 파리

“여기에 머물면 현재가 될 거예요. 그럼 곧 또 다른 황금시대를 꿈꾸게 되겠죠.
 ‘현재’라는 건 그런 거예요. 늘 조금씩 불만스럽죠. 삶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밤이 깊은 파리의 골목에서 길 펜더는 수상한 차에 올라탄다. 낯선 언어로 손을 내미는 사람들을 선뜻 따라나선 건, 그들이 탄 차가 길이 동경하는 클래식 푸조라서가 아닐까. 단지 올드 카인 줄 알았던 차는 그를 옛 파리 예술가들의 파티에 데려다준다. 클 포터의 연주를 들으며 피츠제럴드 부부와 인사를 나눈 그는 금세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눈치챈다. 1920년대 파리, 그가 늘 마음에 품어 온 ‘황금시대GOLDEN AGE’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파블로 피카소, 그리고 그들의 뮤즈 아드리아나. 길은 자신이 없어 어디에도 내놓지 못한 소설을 사랑해 주는 아드리아나에게 설렌다. 같이 여행 온 약혼녀 이네즈와 사사건건 부딪히며 무안해지는 동안, 길은 자정마다 시간을 건너 파리의 예술가들과 어울린다.

길과 아드리아나가 수상한 마차에 선뜻 올라탄 것 역시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1900년대 벨 에포크(프랑스어로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뜻)의 파리. 아드리아나는 줄곧 꿈꿔 온 시대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만 돌아가자는 길에게 그곳에 남겠다고 한다. 길은 자신이 사랑한 ‘황금시대’를 마다하고 과거를 택한 아드리아나를 두고 현재로 돌아온다. 참고 외면해 온 문제들을 마주할 땀 골치 아프지만, 그가 바라보는 파리는 여전히 아름답다. 갈등과 환상을 내려놓은 길은 후련했을까. 어쩌면 그 전과 크게 다를 바 없을 지도 모른다. 삶이란 늘 옥마르고 어딘가 허전하니까. 그래도 그는 그의 시대를 걷는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비 오는 파리의 밤, 것처럼 낭만을 이야기하는 이와 마주치는 행운이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MUSIC

하루의 조각들을 모아

[멋진 하루 OST], 김정범, 2008



© 멋진 하루

- 10:12 AM 11:32 AM 12:45 PM 2:10 PM
- 3:04 PM 4:26 PM 5:07 PM 5:48 PM 6:43 PM
- 8:11 PM 8:52 PM 9:17 PM 11:59 PM

지난 하루, 아니 요즈음을 돌아볼 때 듣는 음악이 있다. 음반 [멋진 하루 OST]는 희수와 병윤의 하루를 그린 영화의 음악을 담은 앨범이다. 영화는 1년 전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나타난 희수와 갚을 돈을 찾으려 나선 병윤이 함께 돌아다니며 보낸 하루를 그린다. 앨범은 시간이 적힌 열세 트랙으로 짜여져 있다. 10:12 AM, 11:32 AM, 12:45 PM... 영화 내내 들쭉이는 지질한 마음들과는 달리 음악은 낭만적이고 편안하다. 화려한 악기 소리나 가사에 방해받지 않고 작은 소리가 필요한 때 들어보는 것도 좋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장면에 간섭하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리듬을 만든다.

화성인의 시간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지?’라는 생각으로 달력만 뺀히 바라보는 계절이 돌아왔다. 해마다 이맘때가 오면 가장 조용한 곳에서 종이를 펼쳐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지, 가장 아쉬웠던 건 무엇인지...,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의 우리는 어떤 일상을 보냈을까?

에디터 김채은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박나영 | 공인중개사 기적의 이벤트 당첨

올해 2월, 아침 일찍부터 집 앞 마트에서 개업 1주년 기념 이벤트 경품을 추천한다는 문자가 왔다. 나는 4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아주 작은 이벤트에도 당첨된 적이 없었기에 문자를 받고 추천 행사에 참석해야하나 망설였다. 많은 고민 끝에 당첨이 안 되더라도 장을 봐 오면 되기 때문에, 룡패딩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사람이 무수히 드나드는 마트에 도착했다. 사람은 많았고, 추천함에는 추천을 기다리는 영수증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사회자의 진행으로 경품 추천은 시작되었지만 역시나 내 이름은 오랜 시간 동안 불리지 않았다. 집에 두고 온 아이들 걱정에 자리를 박차고 가야 하는지 고민을 거듭했고, 어느덧 1등, 2등, 3등 당첨자 호명만을 앞두고 있었다. ‘자리가 작은 경품이라도 탔으면 지금까지 기다릴 필요 없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던 중 내 번호가 불렸다. 3등에 당첨되었고, 가슴이 쿵쿵쿵 뛰었다. 무려 당첨금 100만 원이었다. 2020년 새로운 해를 커다란 행운으로 시작하는 느낌이었다. 가까운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하며 떠들썩하고 신나게 보냈던 그날이 지금도 신기하고 커다란 행운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그 행운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연초에 가진 큰 행운이 있기 때문에 2020년은 희망자게 끝을 맺을 거라고 믿는다.

송지희 | 교사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 참여

코로나 덕분에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에 동참하게 되었다. 환경에 관심이 있던 했지만 직접 실천해 본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모두 해보기로 했다. 사실 그전까지 나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플라스틱 통에 담긴 반찬을 사 먹었고, 집에서 내린 커피보다는 카페에서 사 먹는 게 더 맛있다고 플라스틱 컵에 담긴 커피 수백 잔을 사 마시며 흥청망청 소비했다. 플라스틱을 쉽게 소비하던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 지금의 환경문제가 생겨났다고 생각하니 무서웠다. 지금부터라도 뭔가 해야겠다 싶었다. 비닐 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들고,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내밀고, 반찬과 국은 직접 만들었다. 또한 수질오염의 주범이라는 공산품이 아닌 친환경 비누를 사서 머리도 감고 설거지도 했다. 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불편하고 어려울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직접 실천해 보니, 역시 시작이 반이었다. 뿌듯함과 동시에 꾸준히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환경지킴이로서 새 시작을 열게 되었으니 올해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해일 것이다.

이준희 | 강사 누나와 함께하는 바닷가 피크닉

친누나와 사이가 좋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 함께 식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하지만 요즘엔 병원에서 근무하는 누나가 혹시라도 내게 나쁜 균을 옮길까 봐 잘 만나주지 않는다. 코로나19 이후 누나를 세 달 동안 보지 못하다가 드디어 며칠 뒤에 약속을 잡았다. 최대한 안전한 만남을 위해, 각자 자신의 차를 운전해 매항리 바닷가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사람이 많지 않은 바닷가에서 누나가 싸 온 도시락을 함께 먹으면서 피크닉을 즐기려고 한다. 아마 누나와 함께하는 이 피크닉이 올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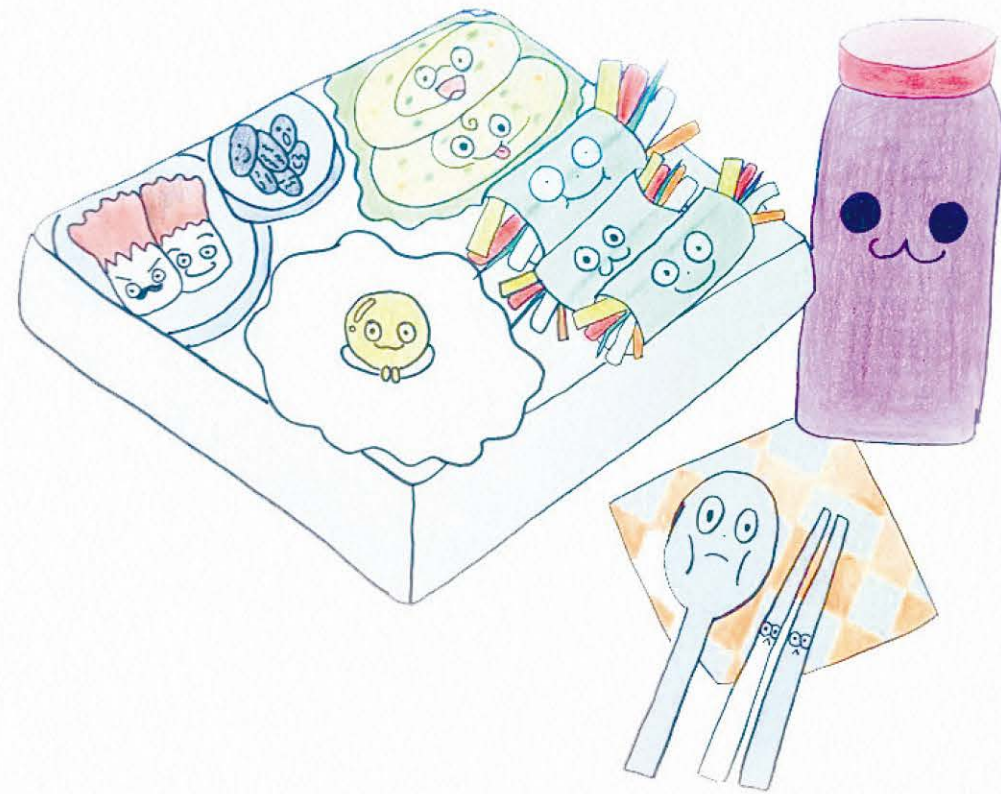
이현대 | 회사원 뒤늦은 진급 파티

코로나로 여행은 물론 외식에도 불안함을 느끼고 회사에서도 재택근무가 시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다.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라는 상황과 아내가 임신하게 되어 멀리 다니는 것보단 집에 있는 일이 많아졌다. 아쉬운 시간이 이어지던 중, 나에게선 선물같이 특별한 소식이 찾아왔다. 직장을 다닌 지 약 8년 정도 되었는데, 드디어 기다리던 진급 소식이 찾아온 것이다. 소식을 전하자마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던 가족들 모습이 떠오른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요즘, 뒤늦게 가족과 진급 축하 파티를 했다. 뒤늦은 파티였지만 언제나 나를 응원해 주고 기뻐해 주는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 얼른 상황이 좋아져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싶다.

유은선 | 사서 친구와 함께한 따뜻한 하루

개인적인 이유로 우울한 어느 날이었다. 멀리 사는 친구가 나를 위로해 주겠다는 이유 하나로 퇴근하고 우리 동네까지 달려왔다. 고마운 마음에 맛있는 걸 잔뜩 사주고 싶었지만,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변경되어 9시 이후에 모든 음식점이 문을 닫았다. 아쉬워하는 내게 친구는 “너랑 같이 있어 주고 싶은 거지,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온 게 아니야.”라고 위로해 주었다. 아쉽지만 우리는 동네 공원 정자에 앉아 편의점에서 사 온 맥주랑 간단한 주전부리와 함께 담소를 나누었다. 그날 밤,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친구의 예쁜 마음이 쌀쌀한 주변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었고, 불안 달빛과 가로등 불빛, 풀벌레 소리같이 항상 주변에 있는 것이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저 평범했던 밤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들이라는 게 아쉬웠고, 그래서 더욱 소중한 게 느껴졌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면 평범한 시간도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앞으로 가족과 친구들이랑 아름다운 기억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겠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조미선 | 학생
사랑을 가득 담은 도시락

가족 여행을 앞두고 엄마와 내가 도시락을 함께 만들었던 적이 있다. 오랜만에 다 함께 여행을 간다는 생각에 설레던 기쁜 날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와 알록달록한 예쁜 음식들을 만들던 그때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 같다.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가족들과 재밌는 여행을 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박소현 | 프리랜서
나에게 찾아온 아기 천사

얼마 전, 나에게 정말 소중한 아기가 찾아왔다. 보면 불수룩 천사같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물론 아기를 키우면서 힘든 점이 있지만, 그저 보고만 있어도 고맙고 사랑스럽다. 이 아기가 나에게 와주어서 행복하다.

화성시문화재단 11·12월 문화소식



글 지영은(기획홍보팀) 사진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 예술가의 작업실 문이 활짝 2020 화성예술플랫폼: 오픈스튜디오



‘2020 화성예술플랫폼: 오픈스튜디오’로 화성시 예술가의 작업실 문이 올해도 활짝 열렸다. 오픈스튜디오는 2017년 열두 명의 지역 작가들과 ‘옆집에 사는 예술가’라는 프로젝트로 시작해 매년 많은 시민의 호응을 받아온 사업이다. 이번 오픈스튜디오는 참여자들이 정해진 집결지에 모여 버스를 타고 함께 이동하며, 하루 두 곳 내외 예술가의 작업실을 방문하는 투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의 확산 예방을 위해 사전 선발된 시민 모니터링단 중 소수 인원만 참여했다. 올해는 만옥, 이항지, 김미자, 박미원, NAKK(낙), 조현익, 김두한, 백영철 작가와 두들리안 타악기 앙상블, 아트컴퍼니 달문을 만나봤으며, 화성시의 주목할 만한 예술 공간으로 모모책방과 해BARAGI 갤러리를 소개했다. 다양한 분야 예술가들의 작품을 만나보고 소통하며, 그만의 스타일이 담긴 작업을 경험해 볼 수 있어 이번 프로그램도 즐거움이 가득했다. 소수 인원만 참여할 수 있어 아쉬움이 남았던 이번 오픈스튜디오를 영상으로도 공개한다고 하니, 추후 화성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자.

문의 시민문회팀 031 290 4634

화성 독립운동가와 함께하는
가상 속 화성 3.1운동 만세 행렬 챌린지



이제 화성 독립운동가를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하여 매년 11월경에 하던 체험 교육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챌린지로 진행될 예정이다. 화성 독립운동가 챌린지는 웹페이지를 통해 100여 년 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캐릭터를 꾸미고, 만들어진 캐릭터로 시간 탐험을 하듯 3.1만세운동 상황으로 들어가 화성의 독립운동가와 함께 만세운동을 진행하는 챌린지다. 또한 만세를 외치는 자신의 캐릭터는 다른 참여자 캐릭터와 한데 모여 만세 행렬을 이루고, 캐릭터는 별도의 이미지 저장과 SNS 공유가 가능하다. 챌린지뿐만 아니라 화성 독립운동가는 귀여운 캐릭터로 재탄생되어,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도 제작될 계획이다. 그 외 추가 정보는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과 화성시문화재단 SNS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문의 독립운동문화팀 031 366 1604
인스타그램 [instagram.com/jeamri_415](https://www.instagram.com/jeamri_415)

화성시에 이런 공간이 있었나요?
생활문화 전시장 이케요IKEYO



화성시생활문화센터에 새로운 문화공간이 생겼다. 바로 생활문화 활동으로 창작된 작품을 소품 형태로 연출한 전시 공간이 조성된 것이다. 생활 가구 전시와 동시에 판매를 하는 이케아IKEYO가 있다면, 생활문화 전시에는 '생활문화 이케요IKEYO'가 있다. 생활문화 IKEYO 전시장은 렉 선반과 포토존으로 구성된 이벤트 룸과 생활문화 작품으로 생활 공간을 꾸민 소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전시장에는 수공예 대표 마켓인 생활시장화인의 시민 운영자들이 공방에서 손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은 약 100여 개의 작품들이 생활 속 연출 공간에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전시되어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장기간 휴관 중이던 생활문화센터는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로 위로와 활력을 주고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추어 10월 16일 재개관과 함께 생활문화 IKEYO 전시장을 오픈했다. 이곳에서는 바로 구매하고 싶은 작품을 만나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살 수는 없다. 대신 작품의 작가와 공방 정보를 제공하여 작가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가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생활문화센터를 찾을 예정이거나 트렌디한 수공예품에 관심이 있다면 꼭 한 번 방문해 보길 추천한다. 생활문화 IKEYO 전시장은 12월 6일까지 운영 예정이며, 생활시장화인 홈페이지에서 영상과 사진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더 귀여워진 코리요가 돌아온다
화성시 대표 캐릭터 코리요



화성시 대표 캐릭터 '코리요'가 더욱 귀여워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코리요는 화성시에서 발견된 대한민국 최초의 뽕 공룡으로 만든 캐릭터로 인형극, 애니메이션, 다양한 굿즈 제작으로 활용될 만큼 인기를 끌며 화성시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2020 코리요 홍보사업'으로 코리요와 친구들을 활용한 콘텐츠를 통해 캐릭터 홍보와 화성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 전문 채널 CJ E&M 투니버스의 인기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와 지방자치단체 캐릭터 최초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 화제가 되었다. 지난 10월부터 <신비아파트> 공식 앱을 통해 코리요의 일상 포스팅, 밋글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어 전국의 아이들에게 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코리요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은 인형극도 즐겨보자.

문의 시민문화팀 031 290 4634

아늑한 텐트에서 즐기는 특별한 공연
<2020 ARTS STAGE: 숲, 씬 텐콕콘서트>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 관람이 어려워진 시민들을 위해 화성시문화재단은 철저한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면서도 즐겁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텐트 객석을 마련한 캠프 콘셉트의 공연, <2020 ARTS STAGE: 숲, 씬 텐콕콘서트>를 선보였다.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시작으로 고희안 트리오, 뮤지컬하이라이트콘서트, 텐콕 명화극장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여 고객만족도 결과 100퍼센트를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은 설문응답을 통해 "텐콕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로 좋은 공연을 기획해 주셔서 감사하다.", "코로나로 지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코로나로 중지되었던 공연이 개최되어 너무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간다."는 후기를 남기며 공연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후, <텐콕콘서트: 굿바이 코로나, 굿바이 텐콕>을 마지막으로 올해의 텐콕콘서트는 막을 내렸다. 아쉽지만 앞으로도 화성, 반석, 누림아트홀에서 다채로운 공연이 계속될 예정이니, 화성시문화재단 아트홀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정보를 확인해보자.

문의 화성·반석아트홀·아외공연장 1588 5234, 누림아트홀 1899 3254

12월에도 우리 집으로 ON!
화성문예아카데미 라이브 클래스



동탄복합문화센터 내 화성문예아카데미의 인기 강좌를 이번 겨울에도 집에서 만날 수 있다. 온라인 라이브 플랫폼 '줌zoom'을 통해 화성문예아카데미 라이브 클래스가 12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그동안 화성문예아카데미는 인문·예술 분야의 실력 있는 강사 라인업을 자랑하며 매 수강 신청마다 빠르게 마감되어,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의 아쉬움이 많았다. 지난 9월, 인문·예술 여섯 개 강좌를 시범 운영하며 정원의 세 배수가 넘는 신청자가 모집되어 온라인으로도 화성문예아카데미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지난 라이브 클래스는 비대면 수업인데도 양방향 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뒤떨어지지 않는 양질의 수업을 제공해 수강생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11월 5일부터 20일까지 12월 강좌 수강생을 모집하며, 화성 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사람당 두 강좌까지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개설 강의 및 자세한 사항은 동탄복합문화센터 홈페이지(hdmc.h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깊어 가는 늦가을, 화성문예아카데미 라이브 클래스와 함께 예술적 소양을 쌓아보자.

문의 교육운영팀 031 8015 8119, 8173

청년 공연예술인이 펼친 다채로운 하우스 콘서트
〈더 에이치 콘서트: Young Artist〉



화성시만의 하우스 콘서트 〈더 에이치 콘서트The H Concert〉가 지난 7월 첫선을 보인 이후, 경기도 문화의 날 주간(매월 마지막 주)마다 진행되며 사랑받고 있다. 화성시 내 민간이 운영하는 한옥, 카페, 미술관 등 시민들에게 친숙한 장소에서 아티스트의 고품격 공연을 즐기며 코앞에서 아티스트와 소통할 수 있어 〈더 에이치 콘서트〉는 공연 회차가 진행될수록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진행된 〈더 에이치 콘서트: Young Artist〉는 좀더 특별했다. 화성시와 화성시문화재단은 장기화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청년 공연예술인의 사회 진출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더 에이치 콘서트〉무대에 설 청년 예술인 공모를 진행했다.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 중인 166개 지원 팀 중 지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10개 팀의 무대가 10월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되고 있다. 특히 화성시에서 활동 중인 'HEYDAY'와 화성시 장애 청년 예술인과 비장애 청년 예술인이 함께 팀을 이룬 '조이너스'의 무대는 의미가 깊다. 콘서트의 월별 일정 및 티켓 오픈 공지는 카카오톡 채널 '더 에이치 콘서트'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문의 예술지원팀 031 290 4604

우리 동네 공방 체험기
생활문화 늦깎이 김길주가 간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수공예 대표 마켓 '화성시 생활시장화인(華市(Fine Market))'이 특별한 영상을 선물한다. 바로 화성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활문화 늦깎이 김길주가 간다'를 공개한 것. 이 시리즈 영상은 생활문화센터 김길주 팀장이 관내 공방(생활시장화인의 시민운영자 공방)을 찾아가 다양한 수공예품 만들기에 도전하는 모습을 그린다. 유명인이 아닌 김길주는 재단 팀장으로서의 사무적인 모습보다는 생활문화 늦깎이로 서투른 공방 체험을 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준다. 함께 출연한 공방 운영자들은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시민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화인마켓이 열리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하고 있다. 지난 10월 첫 공개한 '제1화: 병점동 미싱 전설! 핑쿠베베 미싱공방' 편은 업로드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조회 수 1,500건이 넘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화성시문화재단 및 화성시 생활문화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주 화요일 새로운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화성시 관내에 어떤 공방 체험이 있을까 궁금하다면, 혹은 김길주 팀장의 서투른 생활문화 활동 체험기로 웃음을 찾고 싶다면 이번 콘텐츠를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

영상 화성시문화재단 공식 유튜브, 화성시생활문화센터 공식 유튜브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운동 꿀팁 공개
생활 속 바른 운동법



외부 활동이 중단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일명 '확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동탄복합문화센터 스포츠 교육 강사들은 혼자서도 운동할 수 있는 꿀팁을 화성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유한다. 먼저 '헬스기구 사용법' 영상은 헬스장에서 누구에게 물어보기는 쑥스럽고 어떻게 운동 기구를 사용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신체 부위별로 최적화된 헬스 기구 사용법을 알려준다. 이와 더불어 '생활 속 바른 운동법-너 지금 이려고 있으면 안 돼'도 공개했다. 이 시리즈 영상은 헬스장에서만, 운동장에서만 제대로 운동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계단 오르내리기, 공원 산책 등 잠깐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속 운동 방법을 소개하며, 바른 동작과 운동 효과를 더하는 방법까지 제시해 준다. 강사들이 좀더 재밌게 알려주기 위해 직접 기획 및 촬영·편집은 물론, 열심히 연기를 펼치며 웃음도 주고 있다. 한없이 몸을 움크리게 되는 겨울, 동탄복합문화센터 스포츠 강사들과 함께 재미있고 손쉽게 운동해 보자.

영상 화성시문화재단 공식 유튜브

화성시문화재단이 전하는 이야기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갑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나날이었습니다.

문화가 일상이 되는 플랫폼 ‘화성시문화재단’은 문화예술로 연결되는 도시 ‘화성’을 꿈꾸며 새로운 사업들로 시민과 만났습니다. 비록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몇몇 오프라인 축제는 취소되었지만,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시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온라인 축제 <HAP 페스티벌>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문화 예술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화성시문화재단 공식 유튜브를 통해 무대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2020 찾아가는 공연장’ 선정 아티스트의 깊은 이야기와 화성시 공방 체험기 ‘생활문화 늦깎이 김길주가 간다’ 등의 새로운 콘텐츠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면 교육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화성문예아카데미의 라이브 클래스 운영과 스포츠 강사들의 홈 트레이닝과 같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진 한 해였습니다. 지역 공방의 수공예 제품과 함께 소소한 일상에 특별함을 더했던 ‘화성시생활시장 화인’ 또한 온라인 마켓으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 동탄아트스퀘어 개관 기념 화성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전시와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된 <텐콕콘서트>는 시민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가 침체된 상황에서 화성시의 지역 예술가들을 위해 두 차례의 긴급 예술지원과 화성시의 희망 일자리 사업 ‘M.I.H 프로젝트 예술단’이 진행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다가올 2021년, 모두의 일상을 되찾기를 희망하며 화성시문화재단은 당신의 일상이 빛나는 순간을 응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시민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화성인이 전하는 이야기

1.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평소에는 북산문화센터에서 받아볼다.
이번엔 잠은 베푼 받았습다.

2. 이번 호 콘텐츠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매우 좋다 좋다 보통
 좋지 않다 매우 나쁨

3.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하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CHECK" 김태양 앵커 시골 4000년에서
타인의 공간으로 내뿜어 감동했어.
경험하고, 나에 걸맞게 있는 '공용야채지' 소개
다양한.
관와 상항에도 참여할 수 있는 문화생활에
대한 연애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
(타인의 문화생활의 수경장, 단서, 한강도 배너
우리 품으로 돌아오면 좋겠어...)

▶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며 화성시문화재단 운영 시설도 재개관을 했어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만나보세요.

1.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우편배달로 받았습다

2. 이번 호 콘텐츠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매우 좋다 좋다 보통
 좋지 않다 매우 나쁨

3.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하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화성인의 도전
... 타인들의 생각과 단점을 잊을수 없
나 자신의 대한 단점을 다져낸 생각을 하게 되게
집에서 할수 있는 홈트레이닝에 대해

▶ 지난달, 색다른 도전을 해보셨는지 궁금해요. 이번 호에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 외에도 다른 콘텐츠를 소개해 드렸어요. 지금 바로, '화성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확인해 보세요.

《화분》은 아래 장소에서 무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장소에 《화분》을 놓아두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문의 031 8015 8112

화성시문화재단 운영시설

- 동탄복합문화센터
- 화성시미디어센터
- 화성시생활문화센터
-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 만세길방문자센터
- 화성아트홀
- 반석아트홀
- 누림아트홀

도서관

- 남양도서관
- 동탄다원이음터도서관
- 동탄목동이음터도서관
-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 등지나래어린이도서관
- 봉담도서관
- 병점도서관
- 삼괴도서관
- 송산도서관
- 송린이음터도서관
- 정남도서관
- 진안도서관
- 태안도서관

작은 도서관

- 샘내작은도서관
- 기아행복마루도서관
- 비봉작은도서관
- 마도작은도서관
- 팔탄작은도서관
- 양감작은도서관
- 호수나래작은도서관

문화시설

- 노작홍사옹문학관
- 로알앤컴퍼니 아울렛
- 모두누림센터
- 반도문화재단 아이비라운지
- 소다미술관
- 엄미술관
- 유앤아이센터
-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카페

- 다락
- 다원
- 달팽이그림책카페
- 손커피연구소
- 자마시는뜰
- 카페 그루비
- 카페 쉬시오
- 에데니코 커피 로스터스

호텔

- 라비돌리조트
- 푸르미르호텔

기타

- 독립서점 모모책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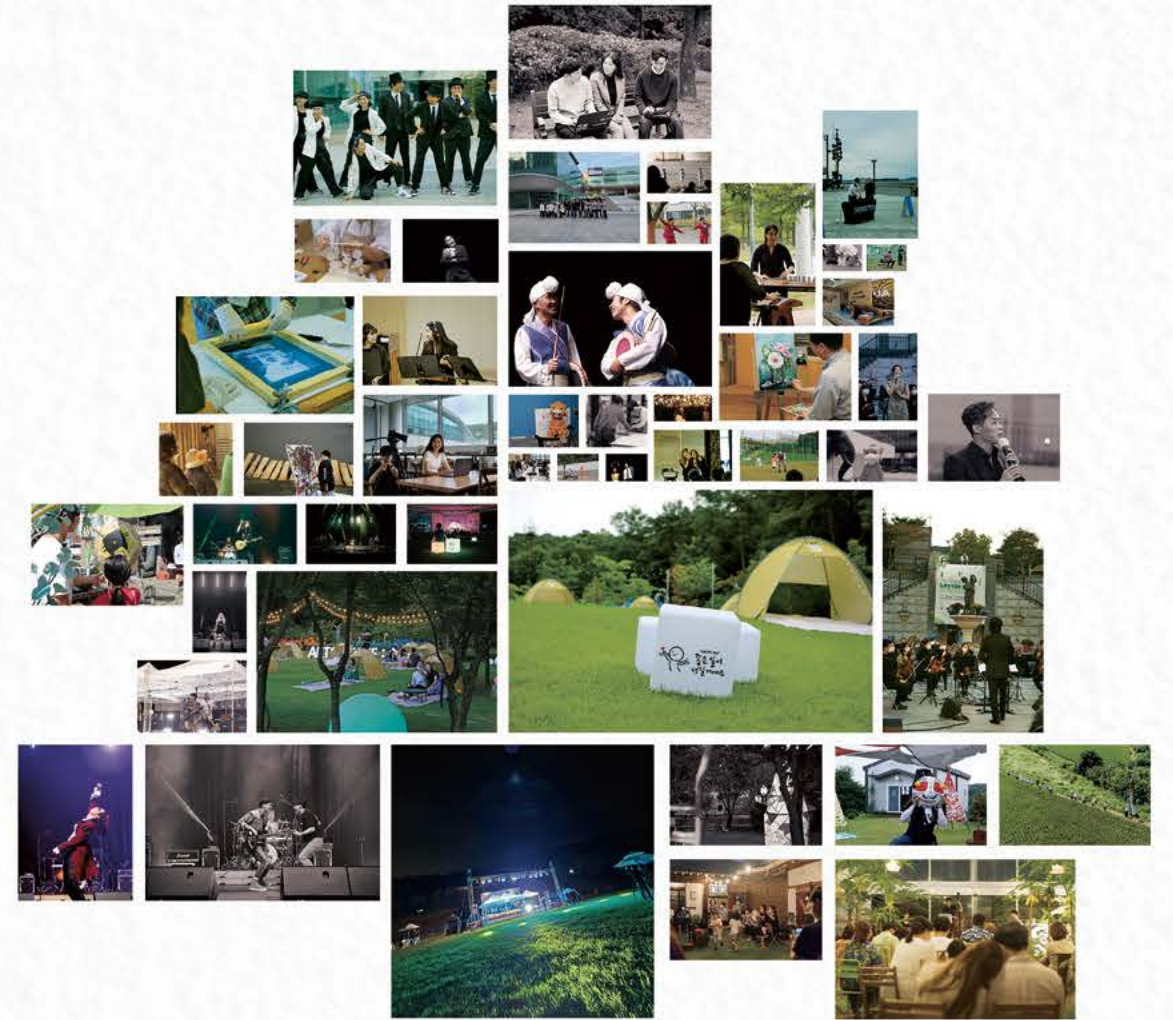
온라인 구독

웹진 《화분》 hwaboon.hcf.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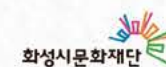


*《화분》은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무가지입니다.
배포처 방문 또는 온라인 구독 부탁드립니다.

2020년,
함께한 시간을 담았습니다.



비록 만남이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화성시문화재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희망과 용기를 전합니다.



《화분》 48호를 만든 사람들



차영은

2020년은 저에게 특별한 한 해이자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춰버려 아쉬움이 많이 남은 해였어요.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2021년은 모두가 활기찬 활동을 재개했으면 좋겠어요.

차유나

올 한 해 동안 《화분》은 재단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매거진보다는 지금 이 시기를 위로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 매거진의 역할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다시금 재단의 풍성한 문화 소식들을 담은 화분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가끔 진행되었던 화분 이벤트들도 잊지 말아 주세요. 또 돌아옵니다. I'll be back!

김채은

유독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 올해도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가 왔어요.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을 마음껏 즐길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 날을 위해 열심히 계획을 세우며 기다리려고요. 《화분》의 다음 호가 나올 때쯤엔 부디 건강한 세상이 되었기를 바라요.

하나

말의 여운이 긴 해였어요. “잘하고 있어”, “보고 싶어”, “힘내”. 따듯한 마음을 건네받은 덕분에 간격을 두고도 외롭지 않게 한 해를 보냈죠. 연말에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려고요.

이다은

한 해를 통째로 무르고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앞으로는 여러모로 더 나아질 일만 남았을 거예요. 힘든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기쁜 시간은 더디 가기를!

이주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을 돌려받고 싶어요. 봄이 오면 올해의 슬픔이 씻은 듯 사라지고 없어지면 좋겠네요. 새 시간이 주어진다면 지구에게 베풀고 마음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요. 다신 이렇게 무력해지고 싶지 않아요.

김지수

시간은 곧 변화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번 인터뷰를 진행하며 지나는 시간에 변화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흐르면 흐를수록 익어가는, 모두의 시간이 언제까지나 평온하길 바라요.



© 김민준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 □ □ □ □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동탄북합문화센터 3층
경영기획국 기획홍보팀 《화분》 담당자

제부도 아트파크

제부도를 문화예술섬으로 재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복합문화공간.
현재 '섬'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작가가 참여한 전시 <드러난 섬>이 진행 중이다.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문화매거진 《화분》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엽서에 적어서 보내주신 내용은 더 좋은 《화분》을 만드는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답변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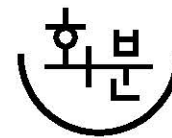
1.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
- ④ 좋지 않다 ⑤ 매우 나쁨

2. 이번 호 콘텐츠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3.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하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4.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 또는 《화분》 편집부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VOL.48 | TIME
2020 NOVEMBER & DECEMBER
문화를 담은 빛나는 그릇

발행처	(재)화성시문화재단
편집국장	서관석
편집팀장	정희봉
기획·편집	차영은, (주)어라운드
디자인·인쇄	(주)어라운드
홈페이지	hcf.or.kr
주소	18459 경기도 화성시 노적로 134
전화	031 8015 8112
팩스	031 8015 8129

《화분》은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격월간 문화·예술 교양지입니다. 화성시 내외의 다양한 문화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담은 그릇이 되고자 합니다. 《화분》에 게재된 글과 원고는 화성시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본지에 수록된 일부 내용은 화성시문화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화분》은 재생원료를 배합하여 만든 친환경종이인 그린라이프지를 사용합니다.

04
PIECE
화성의 한 조각

10
INTERVIEW
화성시 M.I.H 프로젝트 예술단

34
FEATURE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연말 문화 데이트

58
PEOPLE
화성인의 시간